

월간 가든인 5월호

Gardenin

May 2016

특집
기사

꽃잔디 잔치가 열렸습니다!!

GARDENIN LIFE
5
VOL. 37

Gardenin Maintenance

가든엔씨앗 / 물주기 방법, 묘종키우기, 풍접초
생활 속의 도시농업 / 5월 식물관리



Gardenin Plants

산타벨라가 들려주는 화초이야기 / 화초에게 알맞은 햇빛
정원화로 좋은 우리야생화 / 금낭화



Gardenin Culture

오경아의 속초 정원 이야기 / 두 배가 되어오는 기쁨
허브&아로마테라피 / 학생들을 위한 허브힐링



Gardenin Design

갈림 / 돌을 이용한 매력적인 정원, 락가든
정원으로의 여행 / 장미정원



가우라(Gaura)



Gardenin Information

GARDEN & BOOK / 꽃인테리어, 정원 유지관리 실내식물 기르기

ISSN 2288-1719



10,000원

9 772288 171000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업'

종자 종묘 대표기업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많지만, 같은 가격으로
물품, 기술, 노하우를 함께 판매하는 기업은
CZ 입니다.

종자	꽃묘	프러그	구근	조경용 수목
일반초화 종자 다년생초화 종자 야생화 종자 채소 종자 등	일반초화 꽃묘 다년생초화 꽃묘 야생화 꽃묘 등	일반초화 프러그 다년생초화 프러그 야생화 프러그 삼수 프러그 등	춘식구근 추식구근 등	연산홍 자산홍 남천 등



대표전화 031-444-1488
팩스 031-444-1477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67 3층
홈페이지 www.czcorp.co.kr / 쇼핑몰 www.czmart.co.kr

CONTENTS

4 이 달의 포커스 - 꽃양귀비

Gardenin Maintenance

- 6 정원의 일기 - 관상정원, 텃밭정원
- 10 가든엔씨아트 - 물주기 방법, 묘종키우기, 풍절초
- 14 생활 속의 도시농업 - 5월 식물관리

Gardenin Plant

- 18 산타벨라가 들려주는 화초이야기 - 화초에게 알맞은 햇빛
- 22 정원 속 보이네 - 후크시아, 천안국, 스노우드롭
- 26 Special Issue - 국화(國花) 알아보기
- 32 관목시대 - 눈붉은절레
- 34 이명호의 야생화 - 민들레
- 38 테마가 있는 식물이야기 -
자주달개비, 부처꽃담, 돌장미, 즈메풀, 마조람, 로즈마리
- 42 정원화로 좋은 우리야생화 - 금낭화
- 44 서봄, 정원식물 나들이 - 상록잔디패랭이

Gardenin Culture

- 46 오경아의 속초 정원 이야기 - 두 배가 되어오는 기쁨
- 50 허브&아로마테라피 - 학생들을 위한 허브힐링
- 52 특집 - 꽃잔디 잔치가 열렸습니다!!
- 55 정원속의 식용 꽃 - 톨립, 한련화
- 56 정원을 꿈꾸는 사람들 - 여수 명상과 함께하는 정원의 흥차
- 60 힐링원에 - 상생식물로 나만의 화단 가꾸기

Gardenin Design

- 62 칼럼 - 돌을 이용한 매력적인 정원, 락가든
- 64 정원으로의 여행 - 장미정원
- 68 정원다이어리 - 일년초로 조성하는 혼성식재 봄 화단
- 72 실내정원의 크래프트 -
고장난 시계와 나무젓가락을 이용한 STANDING GARDEN
- 74 COLOR IN THE GARDEN - Pink Flowers

Gardenin Information

- 78 정원식물 따라잡기 - 구근 식물
- 80 가든인 생생정보
- 81 GARDEN & BOOK -
정원 유지관리 실내식물 기르기, 꽃 인테리어



Gardenin
Gardenin 월간 5월호

이 달의 포커스

꽃양귀비

꽃양귀비는 우리나라에서 10여년전부터 즐겨 사용해온 대표적인 봄꽃이다. 특히 지역 봄축제에는 빠질 수 없는 소재가 되었다. 대면적에 펼쳐지는 꽃양귀비의 향연은 가히 필적할 만한 봄꽃이 없을 듯하다. 일찍 꽃이 피는 남부지방에서는 5월 중하순부터, 중부지방에서는 5월하순에서 6월초부터 꽃양귀비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잉글랜드양귀비, 캘리포니아양귀비, 아이슬란드양귀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꽃양귀비를 즐겨보자!



각 지자체의 봄축제를 검색해 보시면 꽃양귀비축제가 있는 곳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올 봄 가족들과 함께 꼭 꽃나들이 다녀오세요~

정원의
아름다움과
맛...

가드너 김시용

전 천리포수목원 근무
영국 The Sir Harold Hillier Garden 연수
영국 RHS Garden, Wisley Diploma in Practical Horticulture 졸업

관상정원

아름답지 않은 계절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지만 사람들은 유독 5월을 꽃의 계절이라고 이야기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장미' 때문인지 않을까?

장미(薔薇, Rose)

장미는 정원에 심고 싶어하는 최고의 식물이고, 필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장미는 여러 가지 색깔과 다양한 꽃모양, 좋은 향기 때문에 화단, 화목원, 파골라에 울려 심고, 때로는 지면은 가리는 쓰임새로 심기도 한다. 잘 돌보면 오랫동안 볼 수 있고, 자라기에도 쉽다.

장미는 학명으로는 'Rosa' 속에 속하고 장미과를 대표하는 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장미의 성상은 낙엽활엽관목 또는 낙엽활엽만경목에 속한다. 꽃은 5-10월까지 볼 수 있다.

적절한 식재 시기는 이른 봄과 늦가을이다. 키는 30cm~9m까지 양지나 음지에서 자라거나 뻗는다. 내한성은 강하지만, 일부는 약하다.

재배

▶ 장미는 배수만 잘되면 어떠한 토양에서도 잘 자란다. 장미는 식재할 장소에 잘 발효된 퇴비와 동물 부산물 퇴비를 넣고 기르면 아주 잘 자란다.

▶ 많은 다른 종류의 장미가 있고, 정원에서는 장미를 화분에 심고 안뜰에 심거나 북쪽벽에 덩굴성장미를 심어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

▶ 장미는 심근성의 식물이다. 한번 자리를 잘 잡으면 다양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 그러나 식재 후 몇 년이 지나면 특별히 건조한 토양에서는 충분히 관수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10월 마다 표토의 25cm 되는 토양에 관수를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마르지 않게 하기위해서 그러나 질퍽하지않게 하기위해서 화분에 물을 줄 필요가 있다. 무더운 날씨는 매일 줄 필요가 있다.

시비(施肥)

장미는 다비성 식물이다.

▶ 봄에 장미주변에 장미용 비료를 70g/m² 뿌려준다. 비료를 뿌린 후에 바로 잘 발효된 퇴비와 유기물로 덮어준다.

▶ 유기물로 덮어줄 때 줄기에서 10cm정도는 띄어준다.

▶ 장미는 일반적인 액비를 봄에서 늦여름까지 꽃눈이 형성될 때까지 매 보름마다 화분의 장미에 시비한다. 그리고 나서 농도가 높은 칼륨 액비를 준다.

제조작업

▶ 장미는 토양 표층까지 뿌리가 뻗기 때문에 깊은 호미질은 뿌리를 다치기 때문에 얇은 호미질을 한다.

▶ 일년생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손으로 제초를 하고 멀칭을 하지만 속근성 잡초는 포크로 제거를 할 필요가 있다. 멀칭을 하고 지피식물을 심는 것은 장미를 잡초없이 재배할 수 있다.



전정 전

전정 및 유인하기

현장에서 장미는 꽃핀 후에 꽃대를 바로 잘라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열매를 볼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싶으면 꽃이 진 후에 잘라내지 않는다.

직립형 장미(floribunda, hybrid tea, 관목 원예종)는 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전정을 한다.

장미 전정은 매해 꽃이 잘 피고 무성하게 잘라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안뜰에 심는 장미와 미니 장미사이에는 대단히 다양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전정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다.

▶ 안뜰에 심는 장미와 Polyantha와 미니 장미는 늦은 겨울과 꽃이 진 후에 전정을 한다. 보통 2월 중순이나 3월 사이에 전정을 한다. 여름에는 꽃이 진 후에 꽃대를 잘라준다. 새로 심은 왜성형의 장미는 너무 자주 전정을 하지 않는다.

미니 장미

25cm이하의 장미를 말한다.

약하게 자란 가지, 죽은 가지, 무성하게 자란 가지는 제한적으로 전정한다. 토양에서 가깝게 자란 오래된 가지는 새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잘라낸다.

덩굴성 장미

덩굴성 장미는 매년 꽃이 잘 피고 거대하게 자라게 해야한다. 만약 덩굴성 장미를 그대로 남겨두면 매우 작은 꽃이 피고 가지들이 엉키게 된다. 복잡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장미의 전정은 어렵지 않다.

시기는 늦가을에서 겨울에 해야된다. 이 방법은 덩굴성 장미에 적합하다. 때로 덩굴성장미는 'climbing rose' 와 'rambling rose'로 구별된다. 쉬운 이 둘은 꽃피는 시간으로 구별할 수 있다. 'climbing rose'는 여름과 가을에 꽃이 계속해서 핀다. 반면에 'rambling rose'는 보통 꽃이 6월 쯤에 한번 핀다.

꽃이 시든 후에, 덩굴성 장미는 겨울에 12월에서 2월 사이에 주기적으로 전정을 하고, 장미가 동해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위해 길고 부드러운 가지는 가을에 짧게 전정하고 유인해준다.



병든 가지 자르기



시든 가지 자르기

장미를 색신키기 위해서는 늦가을에서 늦겨울에 전정을 한다. 장미의 잎이 없을 때 하는 것이 쉽다. 이렇게 하면 다음해 봄에 잘 자라고 장미가 더 잘 자란다.

텃밭정원

5월이 되면 시작해야 할 텃밭에 심을 수 있는 작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토마토와 오이를 소개합니다. 이 두 종류의 채소는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서리가 지난 다음에 심어야 됩니다.

토마토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좋다. 토마토의 맛과 성질은 여름철에 적당하기 때문에 제철에 먹어야 한다. 즉 토마토의 맛은 새콤달콤하고 성질은 약간 찬 성질이다. 우리 몸의 진액을 생기게 하여 갈증을 멎게 하고 비장을 튼튼히 하여 소화를 돕는 효능이 있다. 신맛은 간(肝)을 좋게 하여 눈이 피로할 때 도움을 준다.

기르는 방법

과명 : 가지과 학명 : *Lycopersicon esculentum* Mill
영명 : Tomato 한자명 : 番茄(번가)

재배 달력

파종	1차 가식	정식 및 지주대 세우기	유인하기	거두기
2월 말	4월 초	5월 중순	6월 초	7월 중순

토마토의 원산지는 남미 페루의 안데스 산맥이다. 토마토는 보통 모종을 내서 심는데 토마토는 열대작물이기 때문에 서리 내리기 전까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것이 좋다. 씨앗은 2월 말에 난방장치가 되어 있는 곳에 뿌려두었다가, 5월 초까지 모를 기른 후 5월 중순에 텃밭상자에 심으면 된다. 심을 때의 간격의 50cm정도가 적당하다. 2달 정도 자라면 그때부터 수확해서 먹을 수 있다. 또한 결순지르기를 잘 해주면 서리 내리기 전까지 따 먹을 수 있다.



화분에 토마토 심기



결순 따기



토마토 매리골드 대마 섞어짓기



토마토와 바질 섞어짓기

오이

여름을 잊게 만드는 오이

시원한 푸른 색깔의 오이는 대표적인 여름 채소다. 풋고추와 함께 밥상에 올라 더위에 지쳐 무력해진 이의 입맛을 당긴다. 반찬으로 고추장에 푹 찍어 한 입 먹을 때 그 맛, 아삭하는 소리와 함께 시원하고 개운함은 오이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맛이다. 또한 우리의 밥상뿐만 아니라 간식거리로도 개운하게 먹을 수 있다. 물 한 잔 먹는데도 돈이 필요한 세상에 장거리 여행이나 등산할 때, 혹은 운동하고 나서 목이 탈 때 미리 준비해둔 오이 몇 개면 해갈에 충분하다. 또한 즙액은 뜨거운 물에 데었을 때 바르는 등 열을 식혀주는 기능도 한다.

기르는 방법

과명 : 박과 학명 : *Cucumis sativus* L.
영명 : Cucumber 한자명 : 瓜 (과 오이)

재배 달력

파종	정식 및 지주대 세우기	유인하기	거두기
3월 초	5월 중순	5월 말	6월 말

오이의 원산지는 남아시아이다. 오이는 보통 모종을 내서 심는데 따뜻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서리 내리기 전까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것이 좋다. 씨앗은 3월 초에 난방장치가 되어 있는 곳에 뿌려두었다가 5월 초까지 모를 기른 후 5월 중순에 텃밭상자에 심으면 된다. 심을 때는 50cm정도가 적당하다. 2달 정도 자라면 그때부터 수확해서 먹을 수 있다.



가든스쿨-오로라라(oro.LaLa)

정규/단과개강안내

단과과정, 매월초 개강/목금(주.야)/수.토(야)-8주/16강

가든스쿨1(제안서)실무과정

정규과정(상반기) 5월7일 개강/토요일(주간)-12주 16강

가든(정원)디자인전문과정

가든스쿨_오로라라(oro.LaLa)

도시정원.아인(www.kkgarden.com)/경기정원조강학원(www.gardenschool.kr)

031-466-0901

가든엔 씨앗

가정에서 식물을 키우는 방법으로는 씨앗을 구매하여 파종해서 기르는 방법과 묘종을 직접 사와서 화분이나 정원에 식재를 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특히 씨앗으로 파종해서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초보자들은 막상해보면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엔 신설된 '가든엔씨앗' 코너에서는 씨앗의 발아, 파종방법, 보관 등 일반적인 씨앗부리기에 관한 내용들과 씨앗으로 재배가 가능한 꽃들을 매월 1품목씩 묶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글 사진 편집실 그림 박미영

1. 물주기 방법

실내에서 파종상자에 파종할 때

발아를 위해서 씨앗들은 촉촉하고 따뜻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토양이 물을 잔뜩 머금고 있어서는 안 된다. 물은 아주 작은 씨들이 씻겨 지지 않도록 약하게 뿌려준다.



가장 파종한 씨앗들은 분사기나 분무기를 가지고 위에서 뿌리거나 혹은 참안기로 물을 떨어뜨리는 것도 가능하다. 좋은 노즐을 가진 물뿌리개는 씨앗들을 움직이지 않게 하면서 위에서 물을 뿌리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지면 관수는 발아한 묘종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도와준다. 묘종판 바깥을 약 묘종판의 반 정도로 물을 채우고 씨앗 묘종판을 한 시간 가량 담가둔다. 이 방법을 일주일에 2번씩 해주거나 필요할 때 마다 해준다.

GardenIn TIP

물의 양과 시기

물은 거의 모든 식물들이 기능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존재이며, 필요한 양의 물이 충족되어야 각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양을 언제 주어야 하는지를 하는 것이다.

- ▶ 실내나 실외 발아의 가장 높은 비율을 얻어 낼 수 있는 방법은 파종할 때부터 썩이 나올 때까지 토양에 골고루 수분을 유지 시키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약간의 건조한 기간조차도 발아율을 반으로 줄이는 원인이 된다.
- ▶ 빠르게 성장하는 식물은 천천히 자라는 식물보다 더 자주 물을 주

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식물들은 봄에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만 늦여름이나 가을에는 필요한 물의 양이 적다.

- ▶ 실내에서 자란 식물들은 야외로 옮겨지기 전에 좀 더 강한 상태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식물이 옮겨지기 2주전 관수 중간에 약간 건조한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 ▶ 물은 아침에 준다. 특히 겨울철 실내 식물에게는 더욱 그렇다. 아침에 물을 준 식물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적고 더 잘 자란다.
- ▶ 물은 골고루 주어야 한다. 식물의 뿌리는 오직 촉촉한 토양에서만 자라기 때문이다. 깊이 물을 줄수록 건기에 큰 뿌리들이 더 잘 견딜 수 있다.

2. 묘종 키우기

묘종판을 매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데 묘목이 나오는 즉시, 밝은 빛, 물, 통풍과 서늘한 온도가 제공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낮 동안 15도~21도, 밤 12도~15도). 식물이 너무 빠르게 자랄 경우 야외로 옮겨 심기 준비가 안 될 수 있으니 빛을 높이 유지 시키면서 온도를 낮춰서 성장 속도를 조절한다.

하루에 빛을 12시간 연속으로 유지 시키고 8시간동안은 묘종을 어둠 속에서 머물게 한다. 빛이 있는 기간 동안,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고 빛이 없는 어두운 경우에는 양분을 소화 시키면서 성장을 한다.



▶ 발아 후 자라고 있는 상록매랭이 묘종



금계국



발개미취



상록매랭이



사스타데이지

GardenIn TIP

▶ 빛

묘종에 빛을 주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고정된 형광 빛 아래에 묘종판을 두는 것이다. 빛이 처음에는 묘종 가까이 설치되어야 하고, 식물이 자랄수록 더 높이 설치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형광등(혹은 상점에 쓰는 조형)은 높이를 조절 할 수 있게끔 줄이 연결되어 있다. 만약 높이를 조절할 수 없다면, 묘종판을 하드보드지 더미에 올려두고 묘종이 자랄 때 마다 하나씩 빼서 높이를 조절 할 수 있다.

▶ 속아내기

만약 씨앗들이 발아되어 너무 뾰족하게 묘종이 올라온다면 속아내 주어야 한다. "속아내기"란 너무 붙어서 자라는 과도한 양의 식물들을 단순히 제거하고 나머지 묘종들을 더 크게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많은 묘종들을 정리하지 않고 놔두게 되면, 물이나 양분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속아내는 또한 남아있는 식물들 사이에 통풍이 더 잘될 수 있게 해준다. 속아내기를 할 때는 가장 건강하고 왕성해 보이는 묘종들을 남겨둔다. 묘종이 작거나 첫 본엽 전에는 이 방법이 가장 좋다.

3. 풍접초 (Cleome)

풍접초는 곤충에 의해 타가수분 되는 식물이다. 그래서 씨의 저장
을 위해 특정한 종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한다면 한 곳에 하나의
종만 심어야 한다. 꽃은 흰색, 분홍색, 연한 보라색 등 품종에 따라
다양하다.



풍접초 씨앗



풍접초 바이올렛



풍접초 로즈퀸



풍접초 화이트퀸

GardenIn TIP

키가 큰 식물인 풍접초는 일반적으로 튼튼하지만,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는 말뚝을 박아서 지탱을 해줄 필요가 있다.

풍접초 씨앗 정보

- 발아를 위한 최적 온도 : 22~28도
- 식재간격 : 25~40cm
- 씨앗 저장 조건 : 서늘하고 어둡고 건조한 곳
- 최적온도에서 발아 시기 : 파종후 10일~14일
- 파종깊이 : 토양표면에 가볍게 눌러준다.

씨의 수확

꼬투리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식물로부터 꼬투리를 잘라내고 씨앗을 골
라낸다. 씨를 저장하기 전에 완전히 건조시키도록 한다.

실의 파종

풍접초는 빠르게 자라며 보통 마지막 서리 후, 야외 노지에 직접 파종이
가능하다. 낮의 온도가 따뜻하고 밤이 서늘할 때 가장 발아하기 좋다.

실내 파종

1. 야외에 옮겨심기 6~8주전 실내에서 파종한다.
2. 정원에 심기 전 묘종을 찬 기운을 쏘게 해서 튼튼하게 만든다. 풍접
초는 키가 큰 식물이므로 충분한 공간을 주도록 한다.



파종2주후



이식 가능한 묘종

화려한 정원식물

풍접초 퀸시리즈
머리위에 아름다운 족도르를
없어 놓은듯 화사한 꽃



GardenIn TIP

빠르게 발아하기 위해서는 축축한 생육배지를 채운 화분에 심고
약 2주 동안 냉장시킨다.

구입문의

 우리꽃연구소 031.634. 0328

5월 식물 관리

생활속의 도시농업

글 사진 정미나 건국대학교 이학박사
정원미화나눔회 (사)도시농업포럼 교육, 출판부위원
한국의 정원 식물-초본류, 텃밭정원활용책 101 저자

녹음이 짙은 5월 달에는 완산지나 주로 열대성인 열매채소 위주로 모종을 심고 늦서리가 있기에 일기 예보를 보고 정식해야 한다. 이미 파종해서 싹이 난 것들은 속아주면서 식재 거리를 맞추어 준다. 숙은 것은 겉절이 하거나 샐러드로 이용한다. 점점 기온이 올라가면서 병충해에 신경을 쓰여야 한다. 주변보다 건조하면 벌레가 오고 주변보다 과습하면 병이 걸리기 쉽다.

모종심기

모종을 심은 지 2주 정도 지나면 뿌리가 활착이 된다. 2주안으로 심는 것을 수정할 수 있다. 정식 할 때는 그 식물이 다 자라는 크기로 맞춰 심어야 한다. 짙이나 부엽토를 멀칭하면 잡초도 줄고 보온과 비료 효과가 있다. 쌈 채소는 심은 지 한 달 정도 되면 수확할 수 있게 된다. 수확할 때는 잎을 바짝 따 주어야 계속 수확 할 수 있다. 계속 묵은 잎이 생기면 제거해 주어야 한다. 가지나 고추, 토마토는 결실을 제거해 주어야 열매가 크고 튼실하게 자란다. 진딧물이나 응애가 생기기 전에 계란 껍질과 식초를 넣어 만든 탄산칼슘을 1,000배나 1,500배로 물로 희석해서 뿌려준다.

≫강동구 공동체 텃밭 모습

모종으로 심은 모습 / 열매채소



가지



고추



토마토

모종으로 심은 모습 / 뿌리채소



비트



자색콜라비



초석잠



자색무



야콘



쌈채소 수확모습

임채소 모습



들깨



샐러리



치커리

기타 모종 식물 모습



루꼴라



참나물



참근대



산신초



케일



외당귀

강동구 공동체 텃밭 식재 5월 모습



2014년 5월 4일 고덕동 공동체텃밭



감자 모습



5월 초 감자 모습



5월 말 감자 꽃 모습

옥상 모습



5월 초 옥상과 감자모습



5월 말 감자 꽃 모습

종자 파종 후 관리

파종 후 숨이내면서 간격을 맞춰 정식한다.



생채 파종 후 모습



정식 후 모습



작자파상추 모습



맨드라미 파종 후 모습



봉선화 파종 후 모습



더덕 파종 후 모습



5월 옥상모습 / 새광엽교회



호박



잎채소 모습(상추)



돌래



고추



가지



토마토



페트 병을 이용한 심자 화분



상자 텃밭 모습



상자 텃밭 모습

천연칼슘 액비 만들기



1. 식초를 준비한다.



2. 그늘에 말린 계란껍질을 잘게 부순다.



3. 식초에 부순 계란껍질을 넣는다.



4. 천연칼슘을 만든 후 일주일 정도 지나면 계란껍질이 녹는다.

5. 물에 1,000배액 희석해서 사용하면 병충해 예방 및 천연칼슘 비료 효과도 된다.

산타벨라가 들려주는 화초이야기

화초에게 알맞은 햇빛

'화초를 키울 때 가장 좋은 햇빛의 정도는 어느 정도나?'

'관엽 식물에게 제일 좋은 빛의 밝기는 반음지라고 하는데 반음지가 대체 어떤 곳이나?'

'음지와 반음지, 양지와 직사광선은 어떻게 다른가?'

이것은 제가 화초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으로 꼭지와 메일에 수없이 답을 한 것입니다. 말로는 어딘가 모자란 듯 하니 속 시원하게 사진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산타벨라가 제공하는 특급 서비스 ~~~ '사진으로 보여 주마, 화초에게 알맞은 햇빛'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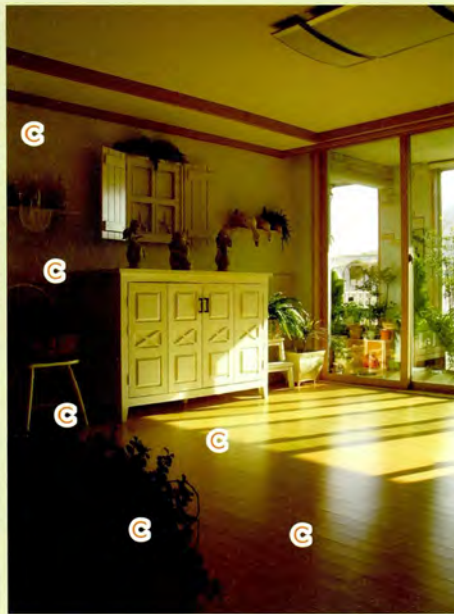
글/사진 성금미 네이버 파워블로거

[저자: 산타벨라처럼 쉽게 화초키우기] <http://blog.naver.com/santabella>



우리집 베란다의 한 쪽 모습입니다.

오른쪽이 바깥이라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햇빛이 들어옵니다



거실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 직사광선 : 정면으로 곧게 비치는 빛살.
- 양지 : 별이 바로 드는 곳.
- 반음지(=밝은 음지) : 절반정도 음달이 진 곳.
- 음지 : 별이 잘 들지 아니하는 그늘진 곳. 녹음달.

이렇게 보면, 위 사진에서

- (사진에는 나오지 않은) 오른쪽 창밖이 직사광선
- A : 양지

- B : 반음지

- C : 음지

가 되겠습니다. 물론 직사광선도 넘게는 양지에 해당이 되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이같이 나누겠습니다. 또,

- A(파란색 글씨) : 햇빛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양지가 되는 부분
- B(노란색 글씨) : 어떤 사물의 그림자에 의해 빛이 직접 닿지 않으므로 반음지가 되는 부분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군요.

다른 사진을 보실까요?



베란다 창문 밖입니다. 위 사진의 식물에 비치는 게 직사광선이지요.



어느 책에서 보니, 반음지란 햇빛이 레이스커튼을 한번 통과한 정도의 빛이라고 했는데, 레이스커튼도 피어지지 않을지 그리 색 믿음직한 표현은 아닌 듯 해요. 꽃집 친정들이 어떤 식물을 권하면서 "이거, 어두운 곳에서도 잘 자라요." 하는 말 역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음지식물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햇빛은 있어야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보기에도 예쁘게 자란답니다. '햇빛을 싫어하는 식물은 없다.'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식물을 어디에 놓고 키워야할까를 말씀드려야겠지요?

오랜 시간 동안 화초와 함께 살아오면서 터득한 순도 100%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직접 키워본 식물만을 적어놓았습니다.

가. 직사광선에서 키우면 좋은 식물

다육식물, 선인장, 라벤다, 로즈마리, 각종 허브 종류, 수련, 어리연, 연꽃, 물아카시야, 꽃기린, 소철, 장미, 철쭉(아철쭉), 수국, 일로에, 아로우카리아, 유카, 제라늄, 황금촉베나무, 카네이션, 클레우스, 팬지, 꽃잔디, 크로톤, 아칼리파(여우꼬리), 블랙클로버, 버베나, 사피니아, 베고니아, 란타나, 백요국, 남천, 울마, 국화, 부겐빌레아, 목마기렛 등

나. A(양지)에서 키우면 좋은 식물

1. 거의 모든 실내식물을 키우기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2. 실내에서 위의 식물(직사광선에서 키우면 좋은 식물)을 키우고 싶다면 무조건 이 곳에 놓아야 합니다.
3. 잎에 무늬가 있는 식물은 이곳에 키우세요. 빛이 약하면 잎의 무늬가 흐려지고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4. 진하고 화려한 색상의 꽃이 피는 식물은 꼭 이곳에 키우세요. 빛이 약하면 꽃이 잘 피지 않고 색깔도 희미해져요. 고무나무 종류(맨드, 가지마루, 벤자민), 파키라, 디펜바키아(마리안느, 인나), 러브제인, 칼란코에, 워터코인, 물매추, 아자중류(테이블아자, 아레카아자, 캔차아자), 관음죽, 글록시니아, 마지나타, 산세베리아, 아글레오네마, 아프리카박아울렛, 안스리움, 알로카시아 아마조니카, 아이비(무늬종), 칼라데아, 달개비, 폴리스스, 셰플레라(홍콩아자), 아멜란드라, 브레이



위 사진 속의 오른쪽이 '양지'이고 왼쪽이 '반음지'가 되는 곳입니다.

화단높이 때문에 하루 종일 그늘지는 부분 역시 반음지가 되겠고요. 물론 계절에 따라 햇빛이 들어오는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반음지가 양지가 되는 때도 있습니다. 자, 이제 구분이 되셨지요?

유리창 샷시를 설치한 보통 집의 실내라면 창문과 방충망을 치우지 않는 이상 직사광선이 비치지는 않습니다.

좀더 말씀드리지요. 그거 아세요?

유리창이 아무리 투명해 보여도 햇빛이 유리를 거치면서 실내에 들어오게 되면 그 강도가 약해진다는 거 말이에요.

우리 집 베란다에 햇빛이 밝게 들어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왼쪽은 유리창과 방충망을 없앤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온 직사광선이고 오른쪽은 유리창(1겹)을 통과한 햇빛입니다.

직사광선도 바깥에서 직접 찍는 직사광선과 실내로 들어오는 것은 차이가 나겠지요.

유리창을 2겹으로 겹치면 빛은 더 약해집니다.

거기다 방충망까지 겹쳐놓으면 햇빛은 더욱 흐려지지요.

유리창에 다른 색깔을 잡아놔야 코팅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구요.

방충망에는 그래도 구멍이 뚫려있으니 빛이 강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실험해 보세요.

사진 하나 더 보실까요?



분명한 차이가 나지요?

니아, 페페로미아, 호야, 산호수, 레몬라임, 사탕초, 애플사이다제라늄, 애나시드, 또래기(천사의눈물), 아나나스(구즈마니아), 식충식물, 펠라고늄 랜디, 플로초, 자스민 종류, 캄파눌라, 휘트니아 등

다. B(반양자=밝은음지)에서 키우면 좋은 식물

1. 많은 실내식물들이 여기서도 잘 자라는 편이에요.

2. A(양자)에서 키우면 좋은 식물들 대부분도 비교적 잘 자랍니다.

네프롤레피스(보스톤편, 더피), 낙죽고사리, 신고니움, 아디언텀, 시클라멘, 클로 피텀(점란), 알뿌리식물(수선화, 히아신스, 무스카리), 샬레, 행운목, 셀라기넬라, 아

스플레니움, 아스파라거스, 프레리, 알로카시아 오도라, 슈가버닌, 아이비 등

라. C(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

여기서 말하는 음지는 빛이 완전히 차단된 어두운 음지는 아니에요.

본명 식물에게 좋은 장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믿지는 않게 자랄 수 있는 식물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종류가 많지는 않아요. 난방을 하는 계절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습도에 민감한 식물은 좋지 않은 곳이에요.

파키라, 아레카야자, 개운죽, 스파티필름, 스킨딕서스, 신홀리페메, 신고니움, 알로 카시아 오도라, 클로로피텀(점란) 등



요즘 최고의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선인장과 다육식물을 실내에서 키운다면 햇빛이 아주 풍부한 유리창 가까이에 두고 키워야 합니다.

식물은, 키우는 사람의 관리방법과 놓인 환경에 따라 어느 정도 적응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말만 믿고 전혀 맞지 않는 환경에서 식물을 키운다면 백전백패로 끝나지요.

예를 들어, 북향의 베란다에 있는 집에 사는 사람이 울마를 너무 좋아해서 '우리 집에 가지고 가서 적응시키며 키워줘야 하는 마음으로 한 그루 사 갔다고 해볼까요?

직사광선에 가까운 햇빛을 좋아하는 울마가 북향의 베란다로 가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물주기를 잘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울마는 햇빛 부족으로 수형(현재적인 식물의 모양)이 흐트러지고 색깔도 보기 싫게 진해지면서 웃자라고 잎이 마르거나 처지면서 결국은 주인과 바이바이 작별 인사를 하게 될 겁니다.

원에 관련 책이나 인터넷 정보에 보면 현관이나 화장실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도 소개하곤 하지요.

현관도 현관 나름이고 화장실도 화장실 나름입니다마는 (보통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볼 때) 현관과 화장실에 햇빛이 들어오는 집은 거의 없지요. 하루 종일 그런 곳에 두었다가는 식물이 살아있다고 해도 제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웃자라고 가늘어지고 수형이 미워지고 겨우겨우 연명하는 것이지요.

물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화장실과 현관에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밝



은 전등을 켜두거나(예를 들어, 대형마트에서 하루 종일 밝은 실내등 아래 살아가는 식물들처럼) 화초를 하루에 적어도 3~4시간 정도의 햇빛을 받는 곳에 두었다가 다시 현관과 화장실에 옮겨다 놓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런 귀찮은 일을 매일 할 수 있을까요? 저같이 화초에 아주 환장한 사람이 아니라면 말이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화초에게 알맞은 빛이 비추는 장소에 두고 키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꽃연구소
URISEED LAB
전화. 031.634.7990

클로버 초콜릿 행복
행복과 행운을 동시에 드립니다

2016년, 정원을 위해 계획하고 계신가요?
우리꽃에 문의 하십시오.

이젠 우리 정원에 맞는 신상품입니다.

"장기개화용" 봄부터 가을까지
쭉~쭉~쭉!! 비료만 듬뿍!!

코레우리 우리드림시리즈, 하디시리즈, 골든볼시리즈, 링시리즈, 텅카벨시리즈
아니 할~수, 할~수, 이럴 수 있는거야?
5월에서 11월까지 숨도 쉬지 않고 피워대는 꽃구름 꽃향기

하늘국화 금방식
금나와라 독대
금방식을 드립니다



에키네시아 레인보우
천상의 화색 5월부터 11월까지
어찌 그리 고운가요?



상록잔디패랭이
4월에서 11월까지 끝내준다.
순천정원박람회 바로 그 주인공



하늘국화
블루, 하양, 큰꽃, 애기별하늘국화
꽃방석, 말해 위해 봐야 알지!
4월에서 11월까지 꽃망울인지
확인하면 바로



가우라
베이비리드, 베이비핑크, 베이비골드트리
나비가 날았을까? 잠자리가 앉았을까?
5월에서 11월을 날고 앉아 꽃피우는



발레리나의 아름다움

후크시아(Genus *Fragaria*)

후크시아는 낙엽성 혹은 상록성의 관목, 그리고 소수의 다년생 식물 포함하여 약 100여종이 들어 있는 속으로,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한다. 이들의 아름다운 꽃은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이로 인해 개발된 8,000종 이상의 교배종과 재배품종들이 있으며, 흔히 초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연속적인 개화를 하는 종으로 매우 다양하고 아름답다. *F. magellanica*는 내성이 가장 강한 종으로 온대의 내한성을 지닌 후크시아들을 육성하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F. triphylla*의 교배종은 *Triphylla*계통의 후크시아를 육성했다. *F. encliandra*, *F. microphylla*, *F. thymifolia*, 그리고 이와 비슷한 종들의 교배종과 재배품종들은 *Encliandra*계통의 후크시아를 만들어 냈는데, 이 계통의 후크시아는 매우 가는 철사와 같은 성장 형태를 보이며 다양한 모양으로 가꾸는데 적합하다. 또한 이들은 매우 작은 잎과 꽃을 지니기도 하며, 몇몇 종은 독특한 향기를 낸다. 후크시아의 꽃들은 흔히 매달려 자라고, 간혹 곧게 서거나 반 직립 상태인 것도 있다. 대부분은 홀로 피어나거나 혹은 엽액에서 무리지어 피어난다. 이 꽃들은 짧거나 긴 꽃받침 관을 가지는데, 각각의 관에는 널리 퍼지는 예쁜 색상의 악편(꽃받침 조각)이 얹혀있고, 4-8개 혹은 간혹 더 많은 수의 곧게 선 넓은 꽃잎을 가진다. 꽃잎은 겹 또는 종모양의 화관을 형성한다. 몇몇 종은 꽃잎이 매우 작거나, 없는 경우도 있다. 다음의 기재 사항은 꽃의 크기를 정의한다. "매우 작음"은 직경 0.5-2cm의 악편. "작음"은 직경 2-4cm의 악편. "중간"은 직경 4-6cm의 악편. "큼"은 직경 6cm 이상의 꽃받침 조각을 갖는다.

후크시아의 잎은 파침형에서 매우 넓은 난형에 이르고, 흔히 미세하게(때로는 확연하게) 거치가 나있으며, 길이는 0.5-25cm이며, 간혹 40cm에 이르기도 한다.



잎은 일반적으로 대생하여 자라고, 때때로 3개의 잎이 운생하여 자라거나, 드물게 호생하기도 한다. 따로 명시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잎은 낙엽성이다. 열매는 열두와 같은 모양으로 달리고 수많은 씨앗을 지닌다. 대부분 서리가 내리기 쉬운 지역에서는, 후쿠시아를 반 내한성 다년생 식물로 취급하여 실내 혹은 온난한 온실(greenhouse)에서 길러서 겨울을 나게 한다. 서리에 내한성을 지닌 후쿠시아 들은 앞날게 심어지고 겨울 피복된다면 넓은 정원에서 겨울을 나도록 할 수 있다. 따뜻한 기후의 지역에서는 후쿠시아를 화단의 넓은 정원에 심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도 겨울 보온은 필수적이다. 튼튼하고 곧은 줄기를 가진 것들은 관목(덩굴)처럼 기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화분재배해야 한다. 늘어지는 습성을 가진 것들은 늘어지는 행잉용으로 가꾸거나, 혹은 매다는 꽃바구니나 창가의 화단, 혹은 베란다에서 기른다. 서리에 대한 내한성은 완전 내한성을 지닌 것에서 서리에 약한 것이 있다. 하지만 완전 내한성을 지닌 식물도 강한 서리가 내리면 잎부분의 피해를 볼 수 있다. 온도가 4℃ 이상으로 유지된다면, 많은 후쿠시아들이 상록성을 유지할 수 있다. 재배는 화분에 재배하여 야외에 둘 수도 있는데 햇볕이 잘 들거나 혹은 약간의 그늘이 진 장소가 좋다. 화분토양은 비옥하고 촉촉하지만 물빠짐이 좋은 토양에서 기른다. 베란다 혹은 온실 밑에서 기를 경우, 밝게 여과된 빛이 들고 공중습도가 있는 장소에서 기른다. 성장기에는 물을 충분히 주고, 매달 균형 잡힌 액체 영양제를 주거나 혹은 2주마다 물비료를 준다. 통풍을 잘 해준다. 번식은 주로 봄 15-24℃의 온도에서 파종을 한다. 그리고 봄에 뿌리를 삼목하거나 늦여름 목질화된 줄기를 붙여서 삼목한다.

병해충은 흰가루병, 녹병이 잘오고 진딧물, 잎진드기, 응애 등이 발생한다.





알싸한 향기를

천인국 속(Genus Gaillardia)

천인국은 일년생, 이년생 그리고 다년생까지 30여 종의 속으로 북미와 남미 서쪽과 미국의 중앙지대의 대초원과 언덕비탈의 넓고 양자바른 서식지에서 발견이 된다.

이들의 잎은 물결모양, 톱니형, 얇게 갈라진 형태나 깃털 모양으로 갈라진 잎에 털이 있다. 기부의 로제트에서 줄기에 교대로 나있는 잎이 있다. 질은 보라색, 갈색, 붉은색 혹은 노란색의 무늬를 가진 빨간색, 오렌지색 혹은 노란색의 데이지처럼 생긴 두상화는 긴 줄기에서 나온다.

수많은 재배종들은 밝은 색의 꽃색에 장기간 특색으로 사랑 받는다.

이들은 양자바른 화단 테두리에 효과적이며, 꽃꽂이 용으로도 좋다.

내한성이 뛰어나 어디에서도 재배가능하다. 다년생들은 좋은 화색이나 특성을 갖는 품종에서 포기나누기 하거나 삽목에 의한 번식도 가능하다. 배는 햇빛 아래 비옥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기르거나 황토 혹은 토양을 별로 가리지 않을 정도로 생육이 강건하다.

시든꽃을 정기적으로 제거해 준다.

늦여름에 약 15cm 정도로 잘라주어 새순을 발면으로 겨울에 덤불을 이루고 이듬해 봄에 더욱 좋은 포기로 꽃을 피운다.

종식은 일년생과 다년생 종의 종자를 이른 봄 기온이 13~18℃일 때 파종하고, 이년생 종자는 늦봄이나 초여름에 직파를 해도 좋다. 대부분의 다년생 식물들은 처음 종자를 심은 첫 해에 꽃을 피운다. 다년생 식물은 봄에 분주를 해주거나 겨울에 뿌리 꺾꽂이를 한다.

병충해로는 노균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민달팽이가 손상을 줄 수 있다.



천사의 눈물

스노우드롭 속(Genus Galanthus)

추식 구근으로 자라는 다년생 식물 19여종의 속으로 대부분 고지대의 삼림지에서 혹은 바위가 많은 지역의 유럽에서 서아시아까지 발견된다. 주로 늦 겨울에서 봄 중순까지 꽃이 피고 각각의 구근은 가느다란 줄기에 아치를 이루는 꽃대에 2개 혹은 3개가 총처럼 달려 피어난다. 잎은 반직립형의 짧은 참모양이고 땅에서 붙어 나온다. 종모양의 꽃은 백색에 녹색의 무늬가 있는 작은 내부 화피 조각이 있고 3개의 크고 밖으로 퍼져있는 외화피 조각들이 있다. 이들은 가끔 향이 나기도 한다. 대부분의 스노우드롭은 잘 자라고 기르기가 쉽다.

잔디밭이나 혹은 활엽수의 삼림지에 재배하기에 적합하고 화단의 테두리나 암석정원에서 잘 자란다.

모든 부분들은 먹었을 경우, 가벼운 복통을 일으키며 구근과 접촉 시 피부 염증을 일으킨다.

내한성은 강하고 부식토가 많고, 축축한 곳에서 기르나 배수가 잘 되는 토양으로 여름에는 잘 건조해지지 않고 그늘이 약간 있어야 한다. 종식은 넓은 파종 틀에 씨앗이 성숙하자마자 파종을 하고 여름에는 그늘을 유지시킨다. Galantus 종은 화단에서 쉽게 이종교배가 되지만 발아는 잘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화 후 잎이 시들기 시작하면 뿌리를 캐내 분구한다. 해충 및 질병으로는 곰팡이피해를 볼 수 있다.



Special Issue

국화(國花) 알아보기

우리나라의 나라꽃은 무궁화이다. 무궁화의 꽃말은 일편단심, 영원하다는 의미로 민족의 무궁한 발전과 기원을 담고 있다. 피고지고를 반복하며 여름 내내 아름다움을 유지한다.

각 나라마다 국화(國花)가 있기도 하고 없는 나라도 있다. 현재 나라꽃이 지정되어 있거나 대표적인 꽃으로 지정된 나라들중에서 일부 나라들의 국화(國花)와 선정된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글 사진 편집실

일본 - 국화(菊花)

일본의 국화(國花)는 많은 사람들이 벚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다. 일본의 벚꽃나무 또한 우리나라 제주 자생왕벚나무를 가져가 심은 것이다. 일본의 국화는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일본의 왕실을 상징하는 국화(菊花)가 국화(國花)인 셈이다. 일본의 일등공로 훈장도 국화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도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옥일기(旭日旗)는 흰 바탕에 동그라미가 가운데 그려져 있고 사방으로 붉은 줄 열여섯 개가 빛살처럼 퍼져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해가 뜨는 모양을 그린 것이 아니라 동그런 꽃술 다발 주위에 열여섯 장의 꽃잎을 가진 국화를 그린 것이다.



호주 - 골드 아카시아

호주의 국화는 골드 아카시아(Golden Wattle)이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아카시아나무(Robinia pseudoacacia)는 아카시아가 아닌 아까시나무인데 일본인에 의하여 잘못 번역되어진 것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진짜 아카시아 나무는 호주에서 많이 자생하고 있다. 그중 호주의 국화가 바로 이 골드 왓틀(Gold Wattle)이다. 아카시아의 원산지인 호주에서도 그중 많은 아카시아중에서도 이 꽃을 國花로 삼았을 만큼 아름다운 아카시아이다. 초기 백인들이 유입되던 시절 죄수들은 아카시아 나무 가지를 이용하여 움막을 짓기 시작했다. 싸리 가지나무 엮어서 그 위에 진흙을 바르는 식으로 초기 백인들의 거주지를 만들었다. 숲에 자천으로 날린 질리고 부러지지 않고 잔가지가 많은 이 아카시아 줄기는 긴요한 건축 재료였다. 또한 호주 대륙에 서식하는 유칼립투스 숲이 조성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건조하고 자외선이 강해 산불이 많이 나는 호주에 유칼립투스 나무가 피해를 입으면 즉시 나무아래에서 자라는 아카시아가 생명을 띄워 나무아래를 푸르게 하고 습기를 유지시켜 유칼립투스 나무를 재생시킨다. 호주 대륙의 푸르름을 유지하는 1차 생산자적인 품목이기에 호주 국민에게 더욱 친밀감이 가는 수종이다.



스리랑카 - 연꽃

스리랑카의 국화는 연꽃이다. 70%가 넘는 소승불교 신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불교의 상징이 연꽃인가? 싯타타 태자가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 동서남북으로 일곱 발자국씩을 걸을 때마다 땅에서 연꽃이 솟아올라 태자를 떠받들었다는데서 불교의 꽃이 되었다. 연꽃을 이르는 표현으로 처염상정(處染常淨)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더러운 곳에 처해 있어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항상 맑은 본성을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맑고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나 세상을 정화 한다는 말로 연꽃의 성격을 잘 대변하는 말이다. 군자는 더러운 곳에 처해 있더라도 그 본색을 물들이지 않는다는 유교적 표현과도 그 뜻이 같이 한다. 꽃의 색이 깨끗하고 고와서 꽃말도 청결, 신성, 아름다움이다.



캐나다 - 단풍나무

캐나다의 국화는 꽃이 아니라 단풍나무이다. 캐나다인이 웅장하고 힘차며 폭풍우가 와도 이겨내는 단풍나무를 캐나다 사람에게 빗대어 말하였다. 또한 수액(水液)에서 감미로운 메이플 시럽을 얻을 수 있는 실용성이 국화로 선택된 이유로 간주된다. 그것이 시초가 되어 지금 현재 단풍이 캐나다의 국화가 되었다.



독일 - 수레국화

수레국화는 독일 황제와 관련이 있는 꽃이어서 '황제의 꽃'이라고 불리어 왔다. 나폴레옹이 프러시아로 공격해 들어갔을 때, 루이즈 황후는 자녀들을 데리고 곡식이 자라는 밭으로 도망갔다. 왕자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황후는 화관을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그 꽃이 바로 수레국화이다. 왕자 중 한 사람이 어른이 되어 빌헬름의 황제가 되었다. 그는 나폴레옹 3세를 무찔렀을 때 수레국화를 황실의 문장으로 정했다고 한다. 궁정의 정원이 온통 이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황제의 꽃이라는 권위적인 꽃말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화로 굳어 버린 수레국화는 왕제(王制)가 없어지고 공화국이 된 이후에도 전통을 여기는 국민성으로 인해 아무런 문제없이 나라꽃이 되었다.



네덜란드 - 튤립

튤립이라는 이름은 터키어로 중동지역에서 흔히 보는 머리에 두르는 터번을 뜻하는 '톨리반드(Tulband)'에서 나왔다. 16세기 네덜란드 왕자가 튤립 부리를 사다가 궁전에 심은 후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아져 널리 재배되기 시작했다. 그 후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국화가 되었다.



파키스탄 - 자스민

1954년 제정된 파키스탄의 국장을 보면 이슬람교의 상징인 초록색 초승달과 함께 자스민이 등장한다. 이슬람교 교의는 공중속이나, 남과 함께 어울리는 장소에 나갈 때 반드시 자기 몸에 향기를 지니도록 설교하고 있다. 교의를 지켜야 하는 파키스탄의 사람들에게 상쾌한 향기를 가진 자스민은 신앙을 상징한다.



스코틀랜드 - 엉겅퀴

유래는 스코틀랜드와 바이킹과의 전쟁 때문이다. 용맹스럽게 유명한 바이킹 군사들은 심야에 스코틀랜드 기슭을 감행하려했다. 들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전진하기 위해 군화를 벗고 막사에 접근했다. 그중 바이킹족의 한 병사가 엉겅퀴의 가시를 밟고 고향을 질렀다. 그 소리를 듣고 스코틀랜드 보초병이 비상을 걸어 기슭해오는 바이킹족을 물리쳤다고 한다. 적의 기슭에서 스코틀랜드를 구해낸 엉겅퀴는 국화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잉글랜드, 불가리아, 이라크 - 장미

잉글랜드: 영국 왕실에서는 오래전부터 장미의 아름다움과 탐스러운 꽃에 취해 휘장으로 삼아 왔다. 30년 동안 벌어진 랭카스터 가문과 요크가문의 왕의 계승 전쟁인 장미전쟁에서 유래되었다. 랭카스터가가 붉은 장미, 요크가가 흰 장미를 각각 문장으로 삼았다가 화합의 징표로 튜더장미를 만든 것이 오늘날 영국왕실의 상징 문장이 되어 잉글랜드의 국화로 굳어졌다.

불가리아: 유래는 옛날, 시리아의 다카스쿠스에 젊은 이슬람교의 수도승이 있었는데, 아름다운 소녀와 금지된 사랑을 하고 말았다. 신의 노여움을 산 소녀는 장미로 변하고 말았다. 이를 슬퍼한 수도승은 장미가 자라날 땅을 찾아 여행길에 나섰다. 미지의 땅을 찾아 헤맸으나 장미를 피울 수가 없었다. 그는 마침내 불가리아에 도착하여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었다. 이러한 전설의 의하여 불가리아는 장미의 중요한 국토로서, 불가리아의 국화는 장미로 정해졌다고 한다.

이라크: 장미는 회교도에게 있어서는 '신성(神聖)한 꽃'이다. 그런 뜻에서 온 국민이 존경하고 애호하는 꽃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또한 동서간의 장미를 교류하는 교차지의 역할 때문인지 이 나라에 자생하는 아병종이나 혼혈종(混血種)의 장미는 학술적으로도 중요시 되고 있다.



프랑스 - 아이리스

아이리스를 국화로 결정한 유래는 두 가지 이다. 첫째는 그로부스라는 프랑스 왕에 얽힌 이야기이다. 그로부스 임금님 가문의 문장은 개구리였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 아이리스 3송이가 그려진 방패를 주었다고 한다. 그로부스는 신이 자기 가문의 문장을 아이리스로 정했다고 생각하여 방패의 문장을 아이리스 3송이가 그려진 문장으로 바꾸었다. 그 후 2번의 큰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지킨 그로부스 왕은 국화까지 아이리스로 정했다고 한다.

두 번째는 루이 왕조의 문장으로 프랑스가 세력을 펼치던 시기에 권위의 상징으로 아이리스가 사용되어 국화로 지정되었다는 유래이다. 지금도 프랑스를 대표하는 각종 휘장이나 표상(表象)으로 사용되고 있다.



필리핀 - 썸바귀타(말리꽃)

썸바귀타는 넓게는 자스민의 일종이며, 자스민과 같이 방향이 강한 흰 꽃을 차 속에 넣어서 향기를 돋우는 데 쓴다. 이 꽃에는 옛날 웨이웨이 공주의 슬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공주의 약혼자인 왕자 가린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전사한 것을 슬퍼한 나머지 공주도 병을 얻어 사망하고 말았는데, 그 공주의 무덤에서 자라난 꽃나무가 바로 썸바귀타이다. 이 전설에서 필리핀 사람들은 옛날부터 썸바귀타로 사랑의 맹세를 했다고 한다. 그러한 친밀함과 차(茶)속에 넣거나, 약용으로 사용하거나 하여 생활속에 융화되어 있어서 국화로 선택되었다.



이집트 - 수련

이집트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으로부터 4천 년 전부터 수련을 국화로 정하고 있다. 이집트의 땅과 그곳에 살아 있는 것에 생명과 부를 주는 나일강의 이곳 저곳에 자생하며, 특히 푸른 꽃이 많은 수련은 이집트의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의 애호를 받고 신성시되었다. 또한 '부활의 신'으로도 생각되어 미이라의 위에 놓여 지기도 하였다. 기원전 13세기 라메스 2세의 무덤에서는 청색과 백색의 꽃 조각이 발견되었다. 아랍의 각 공화국은 모두 이집트의 이러한 옛 풍속을 그대로 따라, 수련을 국화로 삼고 있다.



북한 - 함박꽃나무

함박꽃나무를 국화로 정한 사람은 김일성이다. 김일성은 1964년에 함박꽃나무에 핀 꽃을 보고 반해 이름을 목란이라 붙여 1991년에 국화로 지정했다. 목란의 의미는 나무에 피는 아름다운 난이란 의미다. 그러나 실제 북한에서는 국화보다 김일성화, 김정일화를 최고로 여긴다. 그래서 김일성화, 김정일화를 자체 개발하여 각종 전시회도 개최하고 있다.



스위스 - 에델바이스

유래는 하늘나라의 생활에 싫증이 난 천사는 지상으로 내려와 세상을 볼 수 있지만 속세와 부딪칠 일이 거의 없는 알프스 산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한 등산가에 의해 발견된 뒤 남자들의 끊임없는 구혼에 시달리게 되자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는데 그 자리에 에델바이스를 남겨 두었다고 한다. 에델바이스는 알프스, 히말라야 등 고산지대에서만 볼 수 있는 꽃으로 스위스를 대표하는 꽃이 되었다.



러시아 - 해바라기

유래는 해바라기가 러시아로 들어올 때 당시 종교에서 기름기가 있는 식물이 종교적으로 금지됐으나 해바라기는 허용되었기에 해바라기가 인기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유래는 해바라기의 꽃말이 '해를 기다림'이라서 따뜻한 해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국화로 정했다고 한다.



“도심광장, 교통섬, 건물앞 공터, 옥상”
행사 디스플레이, 실내정원용
어디에서나 쉽게 설치 가능!!



규격

*부가세 별도

구분	규격	단가
	1,000×1,000×300	400,000
오아시스	1,000×1,000×400	500,000
	1,000×1,000×600	600,000

* 식물, 도양 별도 구매
* 10개 이상 구매 시 배송비 무료

출원번호 10-2014-0137480

오아시스(박스정원)

암석가든형

돌과 식물들을 조화롭게 배치한 암석가든



혼합가든형

다양한 식물들을 이용하여 조성한 미니정원



텃밭가든형

채소와 꽃들을 이용하여 연출한 도시텃밭형



우리꽃영농조합법인

구입문의 T. 031-634-7990

관목
시대화려한 최고의 차폐식물
눈붉은찔레

꽃이 아름답으면서 차폐용으로도 최고의 기능성을 갖춘 눈붉은찔레를 소개하고자 한다.

글 사진 편집실

눈붉은찔레는 웅벽녹화라는 기능성에 부합하는 최고의 식물이다. 용기시정굴의 변이종으로 몇 년에 걸쳐 분리 고정시켜 탄생한 눈붉은찔레는 시장에 선보인 지 벌써 10여년이 넘었다. 웅벽녹화소재가 많지 않고 특히 위에서 식재하여 웅벽 아래로 내리는 소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대부분 덩굴장미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현장에서는 이를 충족해줄만한 소재에 대한 요구가 많았는데 웅벽 차폐용으로 개발한 눈붉은찔레는 이러한 연을 해결해줄 대안이 되는 소재였다.



골프장, 식물원, 아파트 웅벽 등
다양한 현장에 적용되어
그 효과가 입증

맨처음 눈붉은찔레가 적용되었던 곳이 양지파인C.C.의 입구쪽 웅벽이었다. 이곳도 항상 웅벽이 보기 싫은 상태여서 소재를 찾던중 눈붉은찔레를 적용하였고 1~2년내에 바로 좋은 효과를 보면서 이 곳이 바로 눈붉은찔레의 판매 확산의 진원지가 되었다. 그만큼 현장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보이면서 그 기

능성이 검증되었던 것이다. 이후에 골프장, 식물원, 아파트 웅벽 등 다양한 현장에 적용되어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눈붉은찔레는 생육이 매우 강하고 수번음이 좋아 토양의 양분만 충분하다면 활착 이후 1년에 10m이상 자랄수 있다. 건조한 토양에서도 잘 견디지만 빠른 차폐를 위한 식재의 경우 유기질 비료를 충분히 사용하여 자람을 빠르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



꽃은 6월초에 적색으로 피는데 포도송이와 같은 모양의 꽃차례는 30cm정도로 크고 마디마다 꽃이 맏힘으로 온통 꽃덤불을 형성한다. 또한 외대로 길러 동굴게 가지를 내어 꽃을 피우면 최고의 포인트 식물이 된다.



분홍색꽃을 피우는 눈붉은찔레는 새롭게 개발된 품종으로 포복형이 아닌 직립형으로 자라며 정원에 또다른 아름다움을 선보이고 있다.

눈붉은찔레는 최고의 차폐식물로 자람이 빠르고 꽃도 아름다워 현재는 기능성이 뛰어난 최고의 웅벽녹화식물로 시장에 자람매김하고 있다.

자람이 빠르고 꽃도 아름다워 기능성이 뛰어난 최고의 웅벽녹화식물



화려한 신품종 관목

무궁화 점꽃시리즈

- 겹꽃으로 매우 화려한 무궁화 품종입니다.
- 우리의 정원에 잘 어울리는 신소재 관목입니다.
- 테마정원으로 무궁화원을 조성할 때 안성맞춤입니다.



라벤다시폰

브라넬트



화이트시폰



자이타시폰



핑크시폰

구입문의

우리꽃영농조합법인 031-634-7990

일편단심의 상징, 민들레



일편단심 민들레

우리의 토종민들레는 같은 종 이외에는 절대로 결혼을 하지 않는다. 흔하게 피어나는 서양민들레의 꽃가루가 찾아와 애걸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기가 원하는 토종민들레의 꽃가루가 날아오기를 일편단심으로 기다리다가, 토종민들레의 꽃가루가 날아오면 받아들이고, 끝내 오지 않으면 금기야는 처녀임신을 해버리고 만다. 우리가 봄날에 보는 바람에 날리는 토종민들레의 꽃씨는 발이가 되지 않는 무정란과 같은 씨가 많은데, 이 때문에 '일편단심 민들레'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반대로 서양민들레는 근친이고 무엇이고 찾아오는 대로 모두 받아들이 씨를 맺기 때문에, 서양민들레의 씨는 대부분 발이하게 된다. 그래서 서양민들레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절개를 지키는 것이 토종민들레의 수가 점차 줄어드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셈이다.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꽃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희고 노란색으로 예쁘게 핀 민들레는, 한번 색이 트면 무슨 수가 있어도 꽃을 파우고야 마는, 굳센 침력과 의지를 가진 꽃이다. 메마른 땅에서도, 인적이 빈번한 길가에서도, 바위틈에서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의지를 굽히지 않고 꽃을 파우고야 마는, 그런 꽃이 바로 민들레이다. 주로 꽃이 붉어 피기는 하지만, 조건이 좋지 않을 때는 가을까지 가셔라도 꼭 꽃을 파우고야 만다. 우리 토종민들레보다 서양민들레는 개화 시기가 더 길어서 더 많은 후손을 남기므로 번식력이 더 왕성한 편이다. 주변에서 눈에 쉽게 띄는 민들레 종류들은 대부분 서양민들레인데, 서양민들레가 그렇게 많지도, 우리 민들레는 우리 민들레들끼리 가루반비를 하여 순수한 혈통을 지켜나가고 있다.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꽃이다.



민들레



민들레(꽃반침)



민들레(열매)



민들레(잎)

토종민들레와 서양민들레

눈에 보이는 민들레 무리들의 90% 이상은 모두 서양민들레이고, 그 나머지 10% 정도는 우리 토종민들레인데, 그들 중에는 민들레, 산민들레, 흰민들레, 종민들레, 흰노랑민들레 등의 우리 토종민들레가 존재하면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민들레를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꽃반침이 모두 위로 향한다는 점이다. 서양민들레는 이와 반대로 꽃반침이 뒤쪽으로 벌떡 자빠지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민들레의 토종은 여러 종류이지만 모두 꽃색이 연하고 몸도 가늘프게 생긴 것이 특징이다. 역시 우리 토종민들레는 연약하고 다소곳한 느낌이 든다. 반면에 서양민들레는 한 종류이지만, 꽃색이 짙으며 꽃잎이 많고 복스럽게 생겼으며, 꽃반침이 위로 곧게 올라가지 않고 뒤로 자빠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산이 높고 맑은 청정지역이 아니고서는, 눈에 띄이는 노란색의 민들레는 전부 서양민들레이니 정말 안타까울 뿐이다.

민들레의 특징

민들레는 우리나라 각처의 산과 들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산기슭이나 벌이 잘 드는 들에서 자란다. 생육환경은 반그늘이나 양지에서 토양의 비옥도에 관계없이 자란다. 원줄기는 없고 잎이 뿌리에서 뭉치나서 옆으로 퍼지면서 자란다. 키는 10~30cm이고, 잎은 길이가 20~30cm, 폭은 2.5~5cm이고 뿌리에서 나와 옆으로 퍼지며 뻗는다. 잎은 피침형이고 깃꼴로 깊게 갈라지며, 갈래는 6~8쌍이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원줄기는 없고 몸이 털이 약간 있다. 원뿌리가 땅속 깊게 자라며 해가 갈수록 굵고 길어진다. 땅 위의 잎이 손상되더라도 뿌리에서 다시 손이 나와서 자란다. 민들레는 겨울에 줄기는 죽지만 이듬해 다시 살아나는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마치 발이도 다시 깨끗하게 일어나는 백성과 같다고 하여 민초(民草)로 비유되기도 한다.

민들레의 꽃과 열매

꽃은 4~5월에 노란색으로 피고 잎과 길이가 비슷한 꽃대 끝에 두상꽃차례로 달린다. 꽃줄기는 잎의 무더기 가운데서 솟아나오며 속이 비어 있다. 꽃줄기는 처음에는 잎보다 다소 짧지만 꽃이 핀 뒤에 길게 자라는데, 흰 털로 덮여 있으나 점차 없어지고 꽃차례 밑에만 털이 남는다. 총포는 꽃이 필 때 길이가 17~20mm이고, 바깥쪽 총포 조각은 좁은 난형 또는 넓은 피침형이며 곧게 서고, 끝에 불 모양의 돌기가 있다. 열매는 수과이고 6~7월경 검은색 종자로 익는다. 종자는 길이 3~3.5mm의 긴 타원형이고 갈색이며, 윗부분에 가시 같은 돌기가 있다. 위쪽은 부리 모양으로 뾰고 그 끝에 길이 6mm 정도의 하얀 깃털이 솟아 모양으로 붙어서 바람에 날려 멀리까지 퍼진다.

민들레 무리의 비교특징

민들레(*Taraxacum platycarpum* Dahlst.)는 봄철에 노란 꽃을 피우는 우리 토종 민들레를 대표하는 종이다. 꽃은 연한 황색이며 꽃반침이 꽃잎 쪽으로 바깥으로 붙는다. 잎은 깊게 갈라지고 가장자리에 큰 톱니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흰민들레(*Taraxacum coreanum* Nakai)는 꽃이 흰색으로 피는 것이 다르고 나머지 특징은 민들레와 같다. 산민들레(*Taraxacum ohwianum* Kitam.)는 깊은 산속 계곡이나 습기가 많은 절벽에 붙어서 자란다. 키는 크고 왜소하게 생겼으며, 잎이 얇게 갈라지고 잎가장자리에 톱니가 작게 발달하는 점이 다르다. 흰노랑민들레(*Taraxacum*



민들레와서양민들레



산민들레



산민들레



산민들레



서양민들레



서양민들레

coreanum var. flavescens Kitam.)는 꽃이 흰색에 가까운 연한 황색이며, 나머지 특징은 민들레와 같다. 종민들레(*Taraxacum hallaisanense Nakai*)는 한라산에 분포하며, 몸매 털이 없고 키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서양민들레(*Taraxacum officinale Weber*)는 전국 각처의 산지나 들뜬에 가장 흔하게 분포하고 있다. 외래종으로서 민들레 서식지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서양민들레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경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1920년에 그 존재의 기록이 있어 그 전에 이미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다고 파악이 된다.

민들레의 전설

옛날 노아의 대홍수 때 온 천지에 물이 차오르자 모두들 도망을 갔는데, 민들레만은 발이 빠지지 않아 도망을 못 갔다. 사나운 물결이 폭까지 차오자 민들레는 두려움에 떨다가 그만 머리가 하얗게 다 세어 버렸다. 민들레는 마지막으로 구원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가엾게 여겨 그 씨앗을 바람에 날려 멀리 산 중턱 양치바른 곳에 피어나게 해주었다. 민들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날까지도 얼굴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며 살게 되었다고 한다. 민들레는 생명력이 강한 식물 중 하나로 겨울에는 잎과 줄기가 시들어 죽지만 그 뿌리는 살아남아 다시 꽃을 피우는 것이며, 민들레의 꽃말은 '행복'이다.

용도 및 번식법

봄에 어린 잎을 나물로 먹고, 뿌리를 포함한 전초는 약으로 쓴다. 주로 소화기 질환 및 해독과 해열에 효험이 있으며, 간장 생활에도 유용하게 사용한다. 한방에서는 꽃피기 전의 식물체를 '포공영'이라는 약재로 쓰는데, 열로 인한 중창·유방염·인후염·맹장염·복막염·급성간염·황달에 효과가 있으며, 열로 인해 소변을 못 보는 중세에도 사용한다. 민간에서는 젖을 빨리 분비하게 하는 약재로도 사용한다. 꽃이 피어있을 때에 굴취하여 햇볕에 말린다. 쓰기에 앞서서 잘게 썬다. 해열, 정혈, 건위, 발한, 이뇨, 소염 등의 효능이 있고 담즙의 분비를 촉진한다. 적응질환으로는 감기로 인한 열, 기관지염, 늑막염, 간염, 담낭염, 소화불량, 변비, 유방염 등이다. 말린 약재를 달여서 복용한다. 유방염에는 생물을 짓뭉어서 환부에 붙이는 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종자가 익어 날리기 전에 언제든 받아서 뿌려도 되며, 근경이나 종자로 번식한다.



종민들레



흰노랑민들레



흰노랑민들레(꽃발참)



흰노랑민들레와 서양민들레



흰민들레



흰민들레(꽃발참)



흰민들레

글 사진 이명호 이명호의 야생화
http://www.skyspace.pe.kr



가든조아 www.gardenjoa.com
Seed the Dream, Unroll it.

정원도구 특가세일

'베란다 텃밭, 옥상텃밭, 정원관리에 활용하는 도구 총집합!'

20%
~최대 30%할인



손도구 앞치마 7종세트

22,500

18,000원

정원도구세트의 최강자! 앞치마에 요긴한 정원도구들을 담아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구성: '스테인레스 스틸 블레이드 하드우드 손잡이', 모종삽, 갈퀴2종, 파종기, 장갑(PVC코팅 그립), 앞치마 포함

손도구 가방 7종세트

18,000

12,000원

파종하기 모종 옮겨심기 결순따기 가지고르기 등 텃밭관리에 필요한 도구를 가방 안에 모두 담았습니다. 정원 손도구 가방 세트로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구성: '크롬도금 스틸 블레이드, 우드손잡이' 분무기, 전지가위, 모종삽2종, 갈퀴, 끈(30미터), 가방 포함



손도구 앞치마 4종세트

15,000

10,000원

기본도구만 앞치마에 담았다! 가든도구 5종세트입니다.

구성: 저탄소 강스틸블레이드, 크롬도금, 우드손잡이(도구 길이 약 25.5cm), 갈퀴2종, 모종삽 2종

어린이 앞치마 4종세트

11,250

7,000원

어린이 텃밭 정원에 필수품
어린이가 텃밭 활동에 필요한 정원 손도구들을 귀여운 앞치마 안에 모두 담았습니다.

구성: 무독성 코팅 스틸블레이드/우드손잡이, 삽2종, 갈퀴, 앞치마 포함



2만원 이상 구매시 재배백 사은품 증정!(넬러드재배백/ 당근재배백 중 랜덤 발송)

- 어디든 간편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텃밭 상자형 플라스틱 백입니다.

blog.naver.com/gardenjoa777 가든조아:031-712-7009



테마가 있는 식물이야기 연재- ⑤

글 사진 편집실 그림 박미영



1. 음지식물의 이해와 적용

봄부터 가을을 수놓는 진주 자주달개비

우리는 흔히 닭의장풀(*Commelina communis*)을 꽃이 매우 아름답지만 잡초로 분류한다. 이 식물은 들이고 숲이고 흔하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여름 부리를 뽐아서 말려도 습기가 좀 오거나 하면 다시 부리를 내리는 생명이 매우 강한 식물이기 때문이며 1년생이다. 그러나 자주달개비(*Tradescantia reflexa*)는 북아메리카 원산으로 우리나라에는 좋은 관상용 식물로 수입되어 재배되는 식물이다. 우리나라에 전해진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시골의 장독대주변 혹은 텃밭당 숲 가장자리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도입된지가 오래된 듯하다. 예전의 자주달개비는 이름에서 보아지듯 자주색이다. 또한 개화기가 초여름에 한정되어 있어 그다지 인기를 끌지는 못한 것 같다. 최근 우량의 좋은 품종들이 도입되면서 자주달개비의 새로운 진가가 발휘 되고 있는데 우선 화색의 다양함과 함께 꽃이 5월부터 개화하여 가을까지 연속 개화한다는 특징이 있다. 원래 자주달개비는 햇빛이 좋은 곳에서 생육이 좋지만 국내에서의 재배 경험을 토대로 하면 반음지 혹은 숲의 가장자리나 아침저녁으로 해가 드는 활엽수음지 혹은 건물에 가려진 반나절 음지에서 생육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꽃의 색이 더욱 선명하고 오래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 반음지 식물로 제안 하고자 한다.



달개비 레드그레이프



달개비 블루



달개비 아이스

자주달개비는 닭의장풀과 같이 생육이 강건하며 포기 별음이 좋은 식물로 꽃은 이른 아침에 피어 하루만에 지는 단점과 함께 강한 햇빛을 받으면 오전 11시정도면 꽃이 시들기 시작한다. 따라서 장마철에 이 식물의 진가가 발휘되는데 날씨가 흐린 날 혹은 공중습도가 높은 날은 오후까지도 아름다운 꽃모양을 연출한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수돗가나 혹은 연못가의 약간 그늘진 곳에 식재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고 꽃이 형

광색의 느낌을 주므로 햇빛이 일정 부분 들어오는 활엽수림 아래에 적극 활용해 보면 좋다.

물론 햇빛이 좋은 양지에 심어도 생육은 좋지만 여름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잎이 타는 성질이 있어 오히려 피하는 것도 한 방법이며 잎이 지지 분해되면 줄기의 아래에서 잘라 세순을 받으면 가을까지 좋은 꽃과 잎을 감상할 수 있다. 현재 여러 가지 품종이 있으나 대표적인 품종이 레드그레이프, 블루, 아이스, 사뮈데, 카민 등이 있다.



달개비 카민



달개비 사뮈데

Q&A

Q : 세덤류의 관리요령을 알고 싶습니다.

A : 세덤류의 거의 모든 식물들은 물을 함유하고 있는 유조직이 발달되어 있어 건조에 매우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건조하고 척박한 곳에서도 생육이 좋습니다. 따라서 세덤류의 식물생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관리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노지에서는 적당히 비가 와주기 때문에 식재를 하고 바로 물을 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관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물 빠짐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면 질크러지는 경우가 빈번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에 장마기가 길고 많은 양의 비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 배수가 잘되는 토양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식재지에 경사를 주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수중, 수변식물의 이해

큰무리를 이루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부처꽃 탐



부처꽃은 일반적으로 냇가 또는 초원 등의 습지에서 자생하며 현재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수변식물로 재배되어지고 있고 현장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수종이다.

생육이 강건해 특별히 생육환경을 가리지 않는 식물로서 특히 습기를 좋아하고 양지를 좋아해서 수변에서는 더욱더 그 자람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식물이다. 촛불형의 분홍색의 꽃은 여름 수변공간을 시원하게 해주기도 한다. 왕성한 생육은 한 번 자리를 잡게되면 다른 식물의 침범이 불가능하여 잡초와의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부처꽃 탐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새로운 품종으로 기존 부처꽃보다 경관적, 형태적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부처꽃이다.

부처꽃 탐은 잎이 크고 줄기도 두껍고 튼튼하여 단단한 느낌을 주며 쓰러짐이 없고 동시에 꽃대도 길고 풍성하여 식물 전체적으로 볼륨감을 느끼게 해준다. 특히 밝은 진분홍색의 큰꽃은 만개하면 마치 촛불이 활활 타오르는 듯 강렬한 화려함을 전달해준다. 큰무리를 이루면 분홍색의 꽃



물결이 매우 아름답기 때문에 수변에 대면적으로 군식해도 좋고 꼭 수변이 아니라 넓은 공간에 군식해도 좋다. 그리고 다른 수변식물과 어울려 중간중간에 식재해도 좋다. 꽃이 워낙 크고 색깔이 좋기 때문에 혼합식재 시에도 포인트 식물로 활용이 가능하다. 생육이 강한 식물이어서

특별한 관리는 필요하지 않으며 혼합식재의 경우 꽃이 지면 깔끔하게 커팅해주는 것이 좋고 삼목으로 번식한다.



3. 암석가든용 식물

아름다운 꽃과 잎의 질감이 뛰어난 돌장미



돌장미(*Helianthemum mutabile*)는 우리에게 아직 생소한 소재이지만 유키가 있는 회녹색의 잎은 질감이 매우 뛰어나 락가든에 잘 이용되는 소재이다. 잎은 상록이고 꽃은 5-6월에 걸쳐 피는데 꽃의 크기는 작지만 화수가 많아 풍성한 느낌을 준다. 꽃의 색감은 빨강, 노랑, 분홍 등 다양하다.

옆으로 퍼지면서 원형의 초형을 이루어 돌주변이나 돌틈등에 식재하면



아주 잘 어울린다.

Helianthemum 속은 100여종이 넘으며 일반적으로 Rock rose, Sun rose라고도 불리는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조 및 태양의 복사열에 강하며 돌, 자갈 등과 잘 어울리는 식물이다. 생육이 강건하여 특별한 관리는 필요없지만 너무 자라서 찌들게 되면 지상부를 커팅하여 새순을 받는 것도 좋다.

4. 화본과 사초과 식물로 대표되는 그라스

정원용, 옥상용, 군식용으로 좋은
좀새풀



좀새풀(*Deschampsia caespitosa*)은 화본과의 다년생식물로 줄기는 높이가 60cm 정도이며 잎은 오그라들거나 날적하다. 6~7월에 꽃이 원추 화서로 피고 주로 고산지대에서 자라는데 우리나라의 북부지방이나 제주도에도 분포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좀새풀 품종은 조경용으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라스류로 섬세하고 조밀한 털같은 모양으로 원형의 작은 마운드를 이루면서 자라는데 볼륨감이 좋고 녹색의 아름다운 양산디의 질감을 가지고 있다. 꽃이 피면 가을의 햇살처럼 눈부시기도 하다. 생육이 강하고 자람이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서늘한 계절을 좋아하며 건조에 조금 약한 면이 있다. 혹시 여름 고온, 건조에 의한 피해가 있더라도 가을이 되면 바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녹색의 질감이 좋기 때문에 군식해도 좋고 앞쪽에 라인식물로 이용해도 좋다. 그라스정원 또는 암석가든을 조성할 시 앞쪽에 포인트 식물로 3~4포기 모아서 심으면 좋고 옥상용 소재로도 적극 추천할 만하다. 특히 상록은 아니지만 11월까지 녹색을 유지하기 때문에 늦가을에 암석가든, 또는 화단을 조성할 시 시공 후 바로 어느정도 효과를 원할 경우에는 매우 좋은 소재로 활용가능하다.

형태적으로 잎이 짧고 컴팩트한 품종이 있고 잎이 길고 늘어지는 품종, 잎의 무늬가 있는 품종이 있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번식은 봄, 가을로 분주하거나 삼목하면 되고 재배는 큰 화분이나 식재매트로 큰 포기로 재배하는 것이 현장에 적용할 때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어 유리하다. 좀새풀 품종은 그라스정원, 옥상정원, 암석가든에 녹색의 아름다운 질감과 깔끔한 품이 일품인 소재로 새롭게 선보일 것이다.



무늬 좀새풀

Q&A

Q : 장마가 오래 지속되었을때 식물들이 많이 녹아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 유난히 비가 오는 날이 많으면 지피식물을 키우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다년생 지피식물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습한 것을 싫어합니다. 특히 비가 계속내리는 시기에는 고온과 함께 높은 습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병충해에 의한 피해와 습해가 가장 문제가 되는 시기입니다. 장마전, 후에 살균제를 살포하는 것이 좋으며 통풍이 잘되도록 전정을 해주거나 솎아주는 것이 여름철 고온다습한 시기에 병충해와 습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식재를 하기전에 배수가 잘되지 않는 곳은 토양을 개량하거나 배수시설을 확실히 한 뒤 식재를 한다면 습해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5. 향기식물 허브 이야기

마조람(Marjoram)



많은 품종의 *Origanum*(꽃박하속의 식물)이 있는데 대부분은 마조람이라고 불리지만 와일드 마조람(*O. vulgare*)은 오레가노(*Oregano*)로 불린다. 허브정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반내한성의 한해살이인 스위트 마조람(*sweet marjoram*)이다. 건조를 위해 잎을 모으고 꽃이 피기 전에 꽃잎을 따낸다. 가을에는 겨울에 실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옮겨심는다.

화분에 키우는 마조람은 키우기 쉽다. 봄에 화분에 키운 묘종을 사서 정원에 옮겨 심으면 박하만큼 키우기가 쉽다.

자른 마조람은 주로 고기나 가금류에 굵기전에 뿌리는데 쓰이고 스프리에도 뿌린다. 건조시킨 신선한 마조람은 음식의 속으로 많이 쓰인다.

로즈마리(Rosemary)



매력적인 상록관목인 이 식물은 빛이 잘 드는 배수가 잘되는 토양, 비바람이 치지 않는 곳이 좋다. 일반적인 수확은 관목이 60cm 높이가 되었을 때 가능하며 바늘과 같이 생긴 잎이나 파란 꽃은 매우 향이 좋고 주방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다.

5월에 파종을 할 수 있지만 봄에 화분에 키운 식물을 사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몇몇 장식적인 열록달룩한 타입들이 있고 일반적인 녹색 로즈마리보다 내한성이 약하다.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로즈마리는 강렬한 맛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소량을 간간히 뿌려야 한다. 로즈마리는 양, 돼지고기, 송아지고기에 전통적인 맛을 내는데 쓰이고 굵기 전에 몇 개의 잔가지와 넣고 접시에 담기 전에 빼낸다.





정원화로 좋은 우리 야생화

금낭화(경기도 용인시 한택식물원)

향기로운 비단주머니 - 금낭화

금낭화 하면 금색 나는 무언가를 찾으려는 분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금색은 없다. 꽃 속에 감춰진 수술의 꽃밥이 열은 노란색을 띠 뿐이다. 금낭화의 금은 비단 금(錦)자로, 금낭화(錦囊花)는 비단주머니 모양의 꽃이라는 뜻의 이름이다. '등모란' 또는 '등골모란'이라고도 하고 '며느리주머니' 또는 '며느리'로도 불린다. 조물주의 탁월한 솜씨는 금낭화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단순히 지갑 모양이라고 하기에는 흉내 내기 어려운, 복작 미묘하고 정교한 모양의 홍자색 꽃을 기다랗게 휘어진 줄기에 줄줄이 매달아놓았다. 한복을 입던 시절에 앞 치마에 찢을 법한 지갑 모양의 꽃이다. 혹자는 하트 모양 같다고도 하고 짧은 드라이버 모양이라고도 한다. 위낙 특이하게 생긴 꽃인 데다가 홍자색을 입혀놓으니 화려하기가 장신구 수준을 넘는다. 조물주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솜씨다. 너무나도 특이한 색깔 탓에 한때 중국에서 사찰을 통해 전해진 꽃이라고 여겼으나 깊은 산 속에서도 자생지가 발견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꽃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럼에도 금낭화는 초본이고 잘 퍼져 자라기에 아직까지도 자생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꽃이다. 금낭화에는 벌들이 잘 핀다. 홍자색 지갑 속에 숨겨진 꿀을 찾아 행행거리며 날아다닌다. 하지만 안쪽에 숨겨진 꿀까지 주둥이가 닿지 못한다. 성질 급한 녀석들은 결국 꽃을 깨물어 이빨자국을 내놓고 꿀을 훔쳐간다. 예쁜 꽃이 그런 험한 꿀을 당하는 모습에 가슴이 살짝 아프기도 하나 그 또한 자연의 섭리일 것이다. 꿀도 내어주고 더 이상 금낭화의 꽃지갑에는 남은 것이 없다 심지어 그렇지 않다. 꽃잎이 조각조각 떨어지고 나면 기다란 비늘 모양의 열매가 빨랫줄에 늘어놓은 양말처럼 달린다. 익으면 말리듯 벌어지면서 하얀 당분체가 붙은 까만 씨를 내놓는다. 안에 든 씨를 맨손으로 받으면 손에 노란 물감이 든다. 흔적 하나는 또렷이 남긴다.

앵초(앵초과) *Primula sieboldii*

▶ 금낭화(현호색과)

Dicentra spectabilis

개화: 5~6월 높이: 50~70cm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의 산지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 줄기: 곧게 서고 가지가 갈라지기도 하며 분백색을 띠고 전체에서 특유의 냄새가 난다.

▶ 잎: 어긋나게 달리고 2~3회 깃꼴겹잎이다. 작은잎은 3~5갈래로 깊게 갈라지고 갈래조각은 넓은 피침형이며 위쪽에 결각이 있다.

▶ 꽃: 5~6월에 줄기 끝에 달리는 총상꽃차례에 주머니 모양의 홍자색 꽃이 주렁주렁 매달린다. 꽃차례는 활처럼 비스듬히 휘다. 꽃받침조각은 2개이고 피침형이다. 꽃잎은 4개이고 바깥쪽의 홍자색 꽃잎 2개는 끝이 구부러져 밖으로 젖혀지고 안쪽의 흰색 꽃잎 2개는 모아져서 드라이버 모양이 된다. 그 안에 6개의 수술과 1개의 암술이 있다.

▶ 열매: 긴 타원형의 삭과이고 익으면 벌어지면서 검은색 씨를 드러낸다. 씨에 당분체가 붙어 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조물주는 금낭화에게 암모니아 향 같은 냄새를 주었다. 사철 넘버5를 주어야 마땅한 외모이거늘 금낭화에서는 재래식 화장실에서 나는 독특한 체취가 풍긴다. 꽃뿐 아니라 식물체 전체에서 나므로 그 냄새만 맡아도 주위에 금낭화가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 조물주가 완벽주의자는 아닌 모양이다. 철세가인 양 귀비도 액취증이 있었다고 하니 이쯤 되면 조물주의 솜씨도 의심해볼 만하다. 하지만 실수가 아니라면 일부러 그런 것일 수도 있다. 다 갖출 수 없게 만들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의 한 수인지 모른다.



금낭화의 꽃



금낭화의 꽃을 깨물고 꿀을 훔쳐가는 벌



금낭화의 열매와 씨



금낭화



화단에 심은 금낭화(서울 흥재천)



자생지의 금낭화(전북 완주군)



금낭화(경기도 용인시 한택식물원)

유사종 알아보기

금낭화의 별칭인 며느리주머니와 이름이 비슷한 '줄꽃주머니(*Adlumia asiatica*)'는 북부지방의 들에서 자라는 식물이다. 양꽃주머니 또는 덩굴며느리주머니라고도 한다. 비슷한 면이 있긴 하나 전체적인 크기가 금낭화보다 작고 덩굴성인 점이 다르다. 남한에 자생하는 것 중에는 '산괴불주머니(*Corydalis speciosa*)'가 그나마 좀 비슷하다.



한금낭화



줄꽃주머니



산괴불주머니

심기와 관리하기

- 빛을 좋아하지만 한여름에는 어느 정도 빛을 가려줘야 한다.
- 물 빠짐이 잘 되는 땅에 심는 것이 좋다.
- 건조한 상태에서도 잘 견디지만 물은 충분히 자주 주는 것이 좋다.
- 봄에 완숙되바나 덩이거름을 넉넉하게 얹어주고 물계 희석한 물거름을 매주 한 번씩 뿌려준다.
- 6~7월경에 씨방에서 터져 나온 씨를 채종하여 곧바로 파종하면 발아가 잘 된다.
- 포기나누기는 새순이 올라오기 직전에 하며 매년 해줘야 큰 뿌리들이 얽히지 않는다.



글 사진 이동혁

혁이삼촌의 풀꽃나무 알기

http://blog.naver.com/freebowl

한국의 나무 바로알기, 한국의 야생화 바로알기 저자

서봄과 함께 떠나는 정원식물 나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겨울엔 상록으로!

상록잔디패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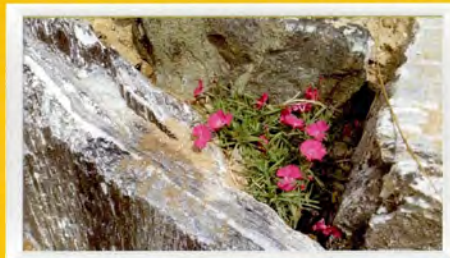


이가 바로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록잔디패랭이입니다.
상록잔디패랭이는 꽃이 장기개화하고 화색이 진하고 잎의 질감이
좋은 특성이 있어 일반 화단에 군식하거나 혼합식재시 암쪽 식물에
적용하면 좋고 특히 암석가든에 빠질 수 없는 필수품목으로 정원식
물의 대표적인 품종입니다. 또한 기르기 쉬워 앞으로 분화용으로
도 좋은 소재입니다. 특히 상록잔디패랭이는 국내에서 개발된 품종
으로 현재 국내외로 품종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모르
고 무단으로 생산을 하면 법적으로 위배되어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
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를 모르고
일부 농가에서 생산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
는데 식물품종보호권
에 대한 홍보와 인지
가 더 필요한 것 같습
니다. 또 하나 좋은 소
식은 상록잔디패랭이
가 외국 바이어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은 끝
에 지금은 유럽의 여
러나라에 로열티 수출
품목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화훼
불모지인 우리나라에
서 효자품종으로 자리
를 잡아갈길 기대해봄
니다.



상록잔디패랭이

현장
따라
가기



속초에서
온 편지

가든디자이너 오경아의 속초 정원 이야기



스스로 명에서 자생을 시작한 미니 수선화

글 사진 오경아

5월 May 두 배가 되어오는 기쁨

오 경 아

http://blog.naver.com/oka0513

정원의 발견, 가든 디자인의 발견, 가든 디자이너 오경아의 영국 정원 산책 저자

작가이자 가든 디자이너로 활동중인 오경아는 정원을 문화로 보는 다양한 글쓰기와 예술과 접목된 생활 속의 정원을 디자인하고 있다.

작년과 다르다!

마당에 심어둔 튤립에 싹이 올라왔다. 정원 일을 하면서 새싹이 올라오는 순간을 지켜보면 정원은 한결같지 않다. 작년에 피었던 싹이 올해 다시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작년 봄, 이미 피어난 수선화를 심었다. 그런데 속초의 날씨가 계속 흐려지자 쉽게 지지 않고 3개월이 다 되도록 피어 봄의 화단을 너무 기특하게 빛내줬다. 그런데 올해는 내심 걱정이 많이 됐다. 작년에는 이미 꽃대를 잘 올린 수선화를 심었지만 땅에 계속 묻어있던 수선화가 겨울을 잘 견디고 나와 줄까? 늦도록 싹을 보이지 않아 걱정이 짙어지고 중이었다. 그런데 드디어 3월말부터 싹이 보였다. 그런데 뭔가 작년과는 사뭇 그 느낌이 달랐다.

싹을 보여주는 시기도 느리고, 키도 훨씬 줄어서 더 이상은 자라지 않고, 꽃을 피웠는데도 역시 그 크기가 아주 작았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게 맞았다. 내가 심은 종은 미니 수선화 *Narcissus 'Tête-à-Tête'*로 수선화 중에서도 가장 크기가 작은 종이다. 작년엔 온실에서 키워낸 탓에 키가 컸지만 이제는 스스로 땅 속에 스스로 적응을 하면서 원래의 본성으로 돌아간 셈이었다. 뿐만 아니라 더욱 달라진 점은 그 옆에 다른 식물을 달고 나왔다는 점이었다. 그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도 작은 알뿌리를 늘려냈다니! 물론 그 중에는 겨울을 나지 못해 죽은 알뿌리도 분명 있다. 결국 살아남은 식물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누가 봐도 작년에 왔던 그 식물이 아닌 올해의 식물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또 하나의 봄이다.

바람직한 정성, 그리고 보답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식목일도 일주일 정도는 덩어리가 맞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많다. 4월 5일은 이미 더워져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에서는 3월 말이 식물을 심기에 적기이



5월은 작년 가을에 심어둔 튤립이 꽃을 피워 절정에 이른다.

기 때문이다. 사실 이 즈음부터는 과장을 하자면 지팡이로 쓰던 나무 꼬챙이를 흙에 묻어도 싹이 나올 정도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식물을 아무렇게나 심는 것은 분명 문제가 생긴다. 식물을 심기 전, 식물을 심어야 할 자리를 파주고, 다시 양질의 흙을 부어주는 일이 필요하다. 처음 식물을 심는 장소라면 더욱 그렇다. 하루 전에 식물의 뿌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웅덩이를 파주고 거기에 물을 가득 붓는다. 물이 하루 동안 조금씩 잘 빠져나간다면 배수가 좋은 땅이 확실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물이 전혀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진흙이 너무 많아 물 빠짐이 좋지 않은 땅이다. 반대로 물을 붓자마자 바로 사라지면 모래 성분이 강해 영양기가 거의 없는 땅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땅은 보강이 필요하다. 물이 잘 안 빠진다면 주변을 포크나 곡괭이로 주변 흙을 찔러서 물 빠짐에

잘 되도록 해주고, 파낸 흙에도 모래를 보강해주는 것이 좋다. 반대로 모래가 많다면 진흙을 좀 더 넣어서 식물이 잘 살 수 있는 흙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땅을 만들어진 뒤에 식물을 심어주면 안전하게 식물이 자리 잡기를 기대할 수 있다.

서양 속담에는 '정원은 삶의 진리를 발견하는 곳'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을 곰곰 생각해보면 삶의 진리가 다름 아닌, 내가 정성을 들인 만큼 식물들이 정확하게 답을 해준다는 말이 아닐까 싶어진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핵심이 숨어있다. 내가 들이는 정성이라는 것이 무작정 내 방식대로 열심히 한다는 말은 아니다. 어떻게 해야 식물에게 도움이 되는지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가능해지고, 이 공부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했을 때 그 보답이 보인다. 잘못된 정성은 오히려 식물들 시들게 하거나 죽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식물이 나를 부르는 그 때!

텃밭정원은 어떤 정원보다 절묘한 타이밍이 필요하다. 스스로 흙에서 자생한 식물들은 꽃샘추위를 이겨낼 능력도 함께 갖추기 때문에 추위 속에서도 쉽게 죽지는 않는다. 그런데 온실에서 씨앗을 발아시킨 채소류들은 상황이 다르다. 추위가 찾아오면 맥없이 생명을 다하거나 혹은 살아남아도 그 힘겨움에 제대로 풍성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 해를 넘긴다. 때문에 느닷없이 찾아온 꽃샘추위까지 계산해 넣어두고 이때를 보낸 시기에 텃밭 정원에 식물을 심는 요령이 필요하다.



이제는 여름 화단을 준비할 때다. 토란, 굴라디올러스, 토란, 생강의 뿌리를 지금 심어야 한다.

반대로 늦어지는 경우도 텃밭 정원은 치명적이다. 나에게 작년 감자의 교훈이 가슴 아프게 남아있다. 바쁜 일에 쫓겨 감자를 심어야 할 시기가 늦어졌다. 그러다 결국 4월말이 가까이 와서야 겨우 감자를 심게 되었는데 결과는 역시 짐작한 대로였다. 앞집 할머니의 텃밭 감자가 무럭무럭 키를 키우는 동안 우리 집 감자는 성장을 하지 못했고, 수확의 시기가 왔을 때는 더 참담했다. 감자 알의 굵기도 형편없었고 수확량도 심었던 양정도가 고작이었다. “난 뭘 했나?” 허탈한 나도 어이가 없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감자에게도 자꾸만 미안함이 생긴다. 식물을 잘 키우는 요령은 결국 식물이 말해주는 이때를 내가 얼마나 잘 맞춰주는가에 있다.

여름 준비

5월이면 여름 식물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칸나, 달리아, 글라디올러스, 백합, 토란, 생강 등 열대 식물들을 지금 땅에 묻어 줘야 7, 8월에 화려한 꽃을 피워준다. 심어야 할 곳의 흙을 잘 정리해주고 큰 알뿌리의 경우는 3배 깊이로 묻어주면 한 달 후 쫄쫄 틈을 틔운다. 영국의 가든 디자이너 거트루드 지킬은 하나의 큰 화단을 두는 것보다는 작은 화단 여러 개 마련하라고 조언했다. 이 작은 화단을 계절마다 하이라이트를 두고 봄의 화단, 여름 화단, 색의 화단으로 연출하라는 의미기도 하다. 나의 속초 집에도 서향 빛이 들어오는 가장 뜨거운 자리에 작은 화단을 마련해두었는데 이곳에 여름 화단을 만들고 있다. 작년 여름 칸나, 생강, 토란, 클레마티스가 어우러졌던 이 화단은 뜨거운 속에 시원함을 전해준다.



나무를 심을 때는 올바른 정성이 필요하다.

우리씨드 완성품! 전시용, 행사용, 효과만점의 빅사이즈 화분 화 통



빅사이즈 화분, 모넬하우스, 지평선 등
행사용으로 안정감 있는
식재후 곧바로 완벽한 정원 조성!

◆ 우리꽃 빅사이즈 화분용 상품은 충분히 자란 정원용 식물을 소비자가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오랫동안 재배하여 큰 포기로 자란 식물로 화분 혹은 기타의 용기 등에 심겨져 이용 후 바로 그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이제 심고 오랜 기간 기다려야 제 모습을 보여주던 정원에서 심고 나면 곧바로 아름다운 최상의 정원이 가능합니다.



우리꽃영농조합법인 구입문의 031.634.7990

윤정식 교수의 허브 & 아로마테라피

학생들을 위한 허브힐링 인성 · 상담 · 진로 교육

꿈과 목표를 심어주는 공부집중력
향수만들기 체험(DIY)

글 사진 윤정식 - 대한아로마테라피학회 회장, 생활의 향기 대표
www.aromatherapy.or.kr/ www.aromalife.com aromalife@naver.com

요즘 학생들은 행복할까?

허브힐링 인성, 상담, 진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과 공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 자기 주도적으로 목표를 갖고 공부를 하게 하자!

어린 시절, 필자는 시골에서 태어나 흙을 밟으며, 물가에서 물놀이도 하고 고기도 잡으며, 간식으로 참꽃, 버찌, 뽕, 머루, 으름 등을 따 먹으며, 자연과 벗하며 놀던 시절이 추억속의 한 장면처럼 떠오른다. 2014년부터 부쩍 학교에서 인성, 상담, 진로 교육에 초청을 받아 학생들에게 "허브향기로 힐링하라!"는 주제로 허브교육과 체험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편부, 편모 또는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공부 제일주의로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나는 국내 최초로 허브힐링(향기치유) 인성, 상담, 진로 교육을 해오면서 이러한 학생들에게 "허브와 향기치유(aromatherapy)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까?"를 끊임없이 연구해왔고 수백 곳의 학교 현장에서 초, 중, 고 학생들과 만나면서 나는 허브힐링 교육체험을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이 자연(허브)과 친구가 되게 한다.

학교 교실에 허브 식물을 갖고 가서, 학생들이 허브 식물을 만지고, 향기를 맡으면서 수업은 시작된다. 허브의 향기를 맡으면서 뇌의 변연계(감정 컨트롤)는 활성화 되기 시작한다. 허브 식물의 이름을 알려주고, 각자 허브의 향기가 다르듯이 사람 또한 각자가 잘하는 것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그럼 너의 특(장점)은 무엇이니? 하고 질문을 던진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한다.

보잘것없는 작은 식물일지라도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가 있고, 이름이 없는 풀이 없다. 흠뻑 나라는 사람은 매우 소중한 존재임을 일깨워 준다.

세 번째로, 로즈마리 허브에서 추출한 로즈마리 오일과 레몬오일 등을 활용해서 공부집중력 향수를 만든다.

로즈마리 허브는 공부 집중력뿐만 아니고, 치매 예방,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오일이다. 향수를 다 만든 후에는 스티커에 나만의 꿈과 목표와 날짜, 자신의 이름을 적게 한다. 그리고 자기가 적은 목표를 발표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 한걸음 전진하면서,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다.



〈공부집중력 향수 만드는 방법〉

1. 솔루빌라이저 3g을 계량한다.
2. 공부집중력 블렌딩 오일(로즈마리, 레몬, 박하, 바질 등) 30방울을 떨어뜨린다.
3. 향수베이스(전나무워터+에탄올) 7g을 넣고 잘 혼합한다.
4. 스티커에 자신의 꿈과 목표, 날짜, 이름을 적어서 붙인다.

허브힐링 인성, 상담, 진로 교육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 학부모들에게도 진행하고 있는 데 그 효과는 정말 놀랍다. 왜 학생들에게 공부를 하게 해야 하는지, 내 아이의 장점은 무엇이고, 나는 부모로서 잘하고 있는가를 한번쯤 생각해 보게 한다.

허브힐링 인성, 상담, 진로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로즈마리 오일에 대하여〉

* 로즈마리(Rosemary) 오일: 집중, 활력

학명 : *Rosmarinus officinalis*

추출부위 : 잎

노트 : 탐·미들

과명 : 꿀풀과(Labiatae)

추출방법 : 수증기 증류법



학명에 있는 로즈마리누스(Rosmarinus)는 '바다의 이슬'이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유래하였다. 로즈마리가 지중해 지역의 바닷가에서 잘 자라는 데다 연한 청색의 꽃이 마치 이슬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피곤하고 지친 심신에 활력을 주는 상쾌한 로즈마리 향은 정신을 각성시키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피로에 지친 현대들에게 꼭 필요한 오일이다. 또한 예로부터 약초로 사용하여 왔으며 엘리자베스 여왕은 향기리워터(로즈마리 워터)로 인해 젊음이 되살아나 건강을 되찾고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 집중력, 기억력 향상에~

집중력이 필요할 때 책상 위에 램프 발향을 하거나 티슈, 손수건 등에 로즈마리 오일 1~2방울을 떨어뜨려 흡입한다.

▶ 혈압이 낮거나 피로에 지친 당신에게~

1.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고 로즈마리 오일 5~8방울 떨어뜨려 반신욕을 한다.



2. 평상시 졸욕할 때 3~5방울 떨어뜨려 졸욕하면 혈액 순환뿐 아니라 혈압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
3. 캐리어 오일 1스푼(5ml)에 로즈마리 오일 2~3방울을 희석하여 목, 가슴, 팔, 다리 등을 마사지한다.
4. 램프 발향을 하거나 티슈, 손수건 등에 2~3방울 떨어뜨려 흡입한다.

▶ 어깨 결리, 근육통에~

따뜻한 물에 1~2방울 떨어뜨려 타올을 사용해 목과 어깨에 온습포를 한다. 또한 운동 후에 입욕을 하면 근육피로가 빨리 풀린다.

▶ 혈액순환, 지방분해, 잦은 붓는 체질에~

캐리어 오일 1스푼(5ml)에 로즈마리 오일 2~3방울을 희석하여 마사지한다. 마사지 크림을 활용해도 좋다.

▶ 비듬, 두피 가려움증, 탈모의 케어에~

유전적인 요인과 스트레스, 호르몬 불균형, 혈액순환 불량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먼저 머리를 감기 전에 두피 마사지를 해주면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

▶ 변비

캐리어 오일 1스푼(5ml)에 로즈마리 2방울, 라벤더 2방울을 희석하여 복부 부위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 한다. 또한 음식 조절과 운동을 권장한다. 로즈마리 허브는 예로부터 요리에 사용되는 허브 중의 으뜸이다. 상큼한 로즈마리 향은 식욕을 돋아주고 또한 소화를 촉진하는 특성이 있다. 고기나, 생선, 해산물 요리, 튀김, 찜, 스프를 만들 때 모든 요리에 로즈마리 잎이나 가루를 넣어 요리를 할 수 있다.

특히, 삼겹살이나 생선 요리를 할 때 로즈마리 잎을 같이 사용하면 돼지 고기나 생선 특유의 냄새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다.

!!! 주의사항

간질 체질, 임신부, 고혈압 환자는 피해주세요~.



|특집| 꽃잔디 잔치가 열렸습니다!!

국내 최대의 생초국제조각공원 꽃잔디 정원

각 지자체마다 꽃축제가 일반화되었다. 이제는 어떤 형식과 기획으로 어떻게 보여주는가가 중요한 화두가 되어있다. 특히 이른 봄에 대면적에 보여줄 수 있는 소재는 튼튼이 일반화되어 있다. 유채, 꽃양귀비 경우에도 5-6월이 되어야 화사한 꽃을 인경준다. 그렇다면 4월에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소재로 꽃잔디 그 이상의 소재는 찾기 힘들 것이다. 다양한 꽃잔디로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연출하여 지나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차 속에서 보이는 멀리 저곳의 강렬한 무언가에 이끌려 차를 돌리게 하는 곳이 있다. 생초국제조각공원의 꽃잔디 정원이다. 약 16,000㎡로 넓은 면적에 펼쳐진 장관은 저마다 탄성이 절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온다. 어쩌면 우리가 흔히 보아온 꽃잔디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한다. 기존의 대면적의 잔디공간을 꽃잔디를 이용하여 새롭게 리모델링한 생초국제조각공원 꽃잔디 정원을 이 봄이 가기전에 찾아가 본다.

약 16,000㎡로 넓은 면적에 펼쳐진 장관은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생초국제조각공원은 특색이 부족하고 넓은 지형적 특성에 비해 시야가 탁 트이게 형성되지 못해 다소 답답함을 느낄 수 있도록 형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위한 방향은 주변 가야 유적과 연계한 특색있는 꽃잔디식재로 고대와 현대가 융합된 새로운 창조지역으로 육성하고 꽃잔디 축제를 통한 지역특성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축제의 장을 마



퍼틸라이즈를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지는 부직포에 유기질비료를 넣어 사면에 꽂는 형태로 토사유실의 방지 및 비가 오면 부직포에 들어있는 유기질비료가 스며나와 비료를 주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비료가 공급이 된다. 유기질 퍼틸라이즈를 사이에 약 500,000본의 꽃잔디 식재가 40여일간 이어졌다.

2016년 봄, 최고의 최상의 봄을 피우다!!

아쉽게 2015년 봄, 4월이 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물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생초국제조각공원은 꽃잔디로 최고의 최상의 봄을 피워내고 있었다. 최상의 봄경관을 연출하며 여기저기서 아름다운 경관을 보기위해 사람이 몰려들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16년 봄, 더욱 완벽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제는 꽃잔디정원으로 명소가 되어 있었다.

꽃잔디는 봄 최고의 소재인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생초국제조각공원의 꽃잔디정원을 보면서 품종과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다.

앞으로는 다양한 꽃잔디의 품종의 이용과 디자인이 중요하다

2014년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떼서 그 해 가을에 완성되었다. 넓은 면적에 단일 품종의 꽃잔디만 식재하면 처음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너무 단순하여 이내 식상하고 지겨워질 수 있음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색깔의 꽃잔디 품종(레드선, 레드아이, 레드킹, 에메랄드, 화이트 등)을 이용하였다. 또한 동시에 전체적인 평면의 배색이 잘 이루어지도록 디자인을 하였고 또한 축구의 고장이기도 한 산청군의 상징물로서 축구공의 문양 및 가야의 상징물인 토기를 꽃잔디 동산에 표현하여 축제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대상지의 경사도가 급해 일반적으로 식재를 할 경우 토사유실이 일어날 수 있어 특허 제품인 유기질 퍼틸라이즈를 설치하였다. 유기질

우리는 일상적으로 봄이면 도로변이나 공원, 식물원 등에서 꽃잔디를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한 종류로 군식해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금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꽃잔디는 봄에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제일 매력적인 소재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더 한 발짝 진전되지 못한 것은 한 품종으로만 군식하다 보



니 여기서 본 느낌과 저기서 본 느낌이 그리 다르지 않으니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디자인적 요소가 자연스럽게 배어들어가지 못했던 것이다. 반면에 생초국제조각공원 꽃잔디동산은 꽃잔디의 다양한 품종을 이용하였고 따라서 색깔을 이용하여 아름다운 디자인을 펼칠 수 있어 기존의 꽃잔디 경관과는 차원이 다른 최고의 감동을 선사해 준 것이다. 봄, 아름다운 경관명소로 꼭 한번 찾아 가 볼만한 곳으로 추천해 본다.



유기질 퍼달라이즈 설치모습



다양한 꽃잔디 품종



레드스타



레드선



레드아이



레드킹



백설



에메랄드



소녀



핑크로켓



핑크문



핑크아이

정원속의 식용 꽃(Edible Flower)

글 사진 편집실

봄의 전령

튤립

튤립은 사랑 받는 봄의 전령이다. 꽃들은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자홍색, 분홍색, 연보라색, 하얀색 등이 있다.

튤립은 일반적으로 가을에 구근을 구매하여 식재하는 추식구근이다. 배수가 잘되는 토양에 정원이나 화분 안에서 구근의 2배정도의 깊이로 심는다.

꽃을 식용으로 할 때 일부 사람들은 튤립에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튤립의 꽃잎은 달콤하고 콩과 비슷한 맛이 나며 부드럽고 아삭아삭한 식감을 가진다.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사용할 수 있다. 좋아하는 음식의 접시에 꽃을 배열해서 장식할 수 있다. 꽃 전체를 새우나 치킨 샐러드에 넣을 수 있다. 날기 전에는 조심히 화분과 암술을 제거한다.



행복한 꽃미소 한련화

한련화는 정원에서 바로 씨앗으로 심어서 키울 수 있다. 한련화는 초보자들조차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이다. 봄에 늦서리가 끝날때쯤 배수가 잘되는 흙에 씨앗을 파종한다. 시원한 날씨인 지역에서는 완전한 빛이 들어오는 곳에 심지만 더운 날씨는 오후에 약간의 그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다. 식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고 가끔씩 진딧물을 조심해야 한다. 체리 맛과 톡 쏘는 맛이 나는 한련화는 외국에서는 즐겨 사용하는 식용 꽃 중의 하나이다.

정원을 꿈꾸는 사람들

글 사진 우정아

여수 명상과 함께 하는
정원의 흥차

최미숙 가드너

한반도의 남쪽 여수 돌산도에 위치한 최미숙 가드너의 1000여 평의 정원은 주변의 1000여 평의 녹차 밭과 어우러져 남부지방의 수종들과 함께 이색적인 풍경들을 담아내고 있다. 내륙지방에서는 월동이 불가능한 동백이 노지에서 한차례 꽃을 피우고는 꽃잎으로 땅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모습은 봄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남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사치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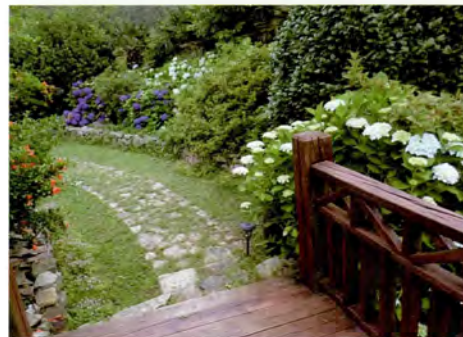
집으로 향하는 진입로가 너무도 협소해 재차 확인을 하고서야 방문을 하게 된 곳이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감탄사가 저절로 터져 나오는 정원이었다. 아기자기하게 꾸며 놓은 대문을 지나면 개울을 건너는 다리가 나오고 정원이 시작된다. 정원은 길을 따라 계곡의 아래쪽으로 곡선을 그리면서 나 있고 그 가정자리에는 돌담이 정갈하게 길을 따라 쌓여져 있다. 크고 작은 나무와 초화류들이 돌담 앞으로 길을 따라 군락으로 조성되어 있고, 길 아래쪽으로는 집과 함께 소정원, 그 아래쪽으로 대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소정원은 주택을 중심으로 주된 중심목을 위주로 소형 관목 위주로 조성되어 있고, 주로 꽃을 보는 초화류들은 화분에 식재되어 관리되고 있다. 쉽게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듯한 소정원에서 대정원으로의 이동은 파고라를 지나서 데크의 난간쪽으로 나가서야 보이는 아래쪽으로의 연결 계단을 통해서 가능하다. 대정원은 정원과 텃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텃밭



도 독특한 디자인으로 조성해 정원과 맥락을 같이 했다. 텃밭의 돔 형태의 비닐하우스는 겨울에는 비닐을 덮어 하우스로 사용하고, 여름에는 그물망으로 덮어 덩굴식물이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유인하는 일석이조로 사용하고 있으며, 형태 또한 정원의 일부로 느껴질 정도로 좋은 아이디어이다. 돌로 만든 조형물들과 함께 파고라와 가든게이트가 목본류 사이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정원에는 조그만 수공간과 층을 달리하는 화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정원 옆으로 녹차 밭이 넓게 펼쳐져 정원의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

처음 터를 구입했을 때는 시멘트로 포장된 길과 마당이 있었다고 한다. 인위적인 것이 싫고, 흙이 좋아 다시 철거를 하고 땅을 파 냈으나, 돌산도라는 지역적 특성상 마당을 만드는데만 엄청난 양의 돌이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나무를 식재하려고 땅을 파면 돌이 있어 그 돌을 한 쪽으로 쌓아 두다가 생각한 것이 이 돌담과 축대와 조형물들이라 한다. 처음엔 귀찮기만 하던 돌담이가 정원의 다른 풍경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자연을 인위적인 것으로 만들어 내기 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연에 순응함에 있다고 한다.





동백나무, 굴거리나무, 박태기나무, 금옥서, 은옥서, 후박나무, 가시나무, 홍가시나무, 이팝나무, 배롱나무, 수양홍도화, 수양홍벚꽃, 목수국, 산수국, 보리수, 불두화, 수수꽃다리, 조팝류, 목단, 비파, 매실, 감나무 등의 목본류와 작약, 데이지, 수선, 옥잠화, 비비추, 월추리, 팔순이, 루피너스, 백합류, 다알리아류, 칸나, 베르가못, 맥문동, 아이리스류, 옥살리스류, 허브류, 데이지 등의 초본류가 지금은 식재되어 있지만 15년 전 처음 정원을 시작할 때만 해도 꽃이 좋아서 초화류 위주의 식재와 잔디의 싱그러움을 꿈꾸며 매일 잡초와 씨름하며 몇 년을 보냈다고 한다. 잡초를 받아들이고 잔디를 포기하면서 정원의 관리는 여유로움으로 비로소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초화류는 수형이 뚜렷하고 키가 큰 것만 선별하여 식재하고, 생명력과 점유력이 강한 사탕초, 구절초, 데이지를 군락으로 조성하며, 될 수 있으면 손이 덜 가고 꽃을 볼 수 있는 화목류 위주의 식재를 선호하는 편이라고 한다. 나머지 잡초나 초화류들은 잔디 깎기로 일정한 크기로 잘라내면 잔디와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고 한다. 키 작은 목목으로 시작한 정원은 10년이 지나도 볼품이 없었으나 12년을 넘으면서 비로소 주위의 환경과 하나되어 지금의 정원의 모습으로 거듭났다고 한다.

비료는 일반 퇴비를 꽃이 피는 화목류만 밀거름으로 주고 있고, 돌산이라 배수가 잘 되고, 산이라 통풍이 잘 되며, 일교차가 커 자연방제가 되는 편이라 한다. 몇 년 전에는 20년 된 만나무가 몇 일 한파로 고사하는 일이 있어서, 남부지방이지만, 냉해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는 것에 신경 쓰고 있다고 한다.

“정원의 비법이라면 정원에서 어떻게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 하는 고민으로 늘 사람들과 어울리면 놀 공리를 하다 보니 파고라와 의자 탁자 등 섬의 공간이 많은 정원이 조성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명상하며, 여기서 나는 홍차를 즐기고, 노래하며, 정원의 품에 있는 것이 나에겐 기쁨의 원천입니다. 어떤 이들은 15년 동안 돈을 그렇게 벌었으면 재벌이 되었을 거라 하지만, 우리 정원의 정원수들을 보면서 감부가 부럽지 않고, 늘 행복함으로 충만합니다. 세월의 기다림과 땀의 거름으로 탄생한 정원이지만 돌아보면 제가 종합 예술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간에 조형예술을 하고, 아름다운 색채를 만들어 내고, 새들의 터전을 만들어 아름다운 소리도 만들어 내고, 바람의 흔들리는 나뭇잎의 연주도 존재하게 하니까요, 그리고, 좋은 향기로 사람뿐 아니라, 자연과 함께 다시 한번 힐링하고, 되돌려 주는 삶으로 나만의 공간에서 예술하는 사람입니다. 하하”

힐링원에

글 사진 김혜숙(신안산대학교 가든스쿨 교수 / 실내원에 및 힐링원에 저자)

화단을 꾸미다 보면 어떤 식물을 함께 심으면 좋을지 고민이 되기 마련이지요. 이 때 서로 다른 식물을 함께 심어서 상호 보완하여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을텐데요, 이러한 식물을 상생식물이라 칭합니다. 즉, 궁합이 좋은 식물을 말합니다. 예부터 농가에서는 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상생식물을 유기농 재배에 응용해왔다고 합니다.

Chapter 4. 상생식물로 나만의 화단 가꾸기



상생식물을 활용한 나만의 화단

상생식물의 잇점은 무엇일까

- ① 병충해를 예방한다.
- ② 생장을 돕는다.
- ③ 연작장해를 크게 줄인다.
(한 장소에서 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해서 오는 해)
- ④ 열매를 잘 맺게 한다.
- ⑤ 토양을 개량한다.

상생식물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

- ① 꽃 - 마가렛, 메리골드 (야채와 같이 심으면 흙 속에 선충을 죽이는 효과가 있다.)
 - 한련화 (무, 오이, 양배추, 브로콜리와 같이 심으면 진딧물을 예방한다.)
 - 페튜니아 (콩이나 채소와 같이 심으면 해충이 잘 생기지 않는다.)
- ② 채소
 - 고추 (배추와 같이 심으면 배추흰나비를 퇴치하며, 해충과 벌레가 줄어든다.)
 - 마늘 (오이, 토마토, 시금치와 같이 심으면 강한 냄새로 병원균을 죽이고 진딧물을 예방한다. 장미와 같이 심으면 풍뎡이를 예방한다.)
 - 양파 (딸기, 양상추와 같이 심으면 칼데충을 예방한다.)
- ③ 허브
 - 가) 캐모마일과 같이 심으면 뿌리에서 나오는 성분이 병충해를 예방한다.
 - 나) 세이지는 양배추와 같이 심으면 배추흰나비가 날아오지 않는다.
 - 다) 민트는 유채와 같이 심으면 강한 향기가 살균효과가 있어서 배추흰나비가 날아오는 것을 막는다.
 - 라) 바질은 토마토와 같이 심으면 강한 향기와 살균성분으로 인해 나방류가 덜 날아오게 한다.
 - 마) 로즈마리는 양배추, 당근, 콩류와 섞어 심으면 배추흰나비가 적게 날아온다.
 - 바) 파슬리는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당근과 같이 심으면 생육을 돕고 풍미를 좋게 한다.



팬넬과 메리골드



인파텐스와 메리골드, 상추를 심은 모습



가지와 바질을 함께 심은 모습



바질과 인파텐스



상추, 한련화, 차이브를 같이 심은 모습

가든인 칼럼

돌을 이용한 매력적인 정원, 락가든(Rock Garden)

글 사진 서준혁



최근 국내의 조경현장에 식물원 혹은 수목원, 골프장 그리고 아파트나 건물들의 조경테마가 다양화되고 차별화 되면서 많은 새로운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락가든(Rock Garden)을 주제로 살펴보고자 한다. 락가든은 돌정원, 혹은 암석정원으로 표현되며 돌과 식물과 그리고 주변환경을 잘 어울리게 하는 고급정원의 한 테마가 되기도 한다. 일반적인 의미로 락가든의 경우 고산의 식물상을 적절히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암석지의 바위 혹은 암석의 공간에 식물을 자연 상태에 가깝게 처리하는 것을 암석정원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정확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

락가든의 기본 테마는 돌과 식물 그리고 주변 환경과 조화가 우선적으로 어울려야 더욱 효과적이다. 그리고 물빠짐을 좋게 하는 것과 여름의 지온 상승을 방지하는 시설을 겸할 수 있는 암거배수와 지하에 여름에 물을 흘릴 수 있는 지하 개울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많은 종류의 키작고 아름다운 고산식물은 추위보다는 더위에 매우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큰 암석배치가 끝나면 부직포를 식재지 전면에 깔아준다. 이렇게 기본적인 작업이 완료되면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하다. 꽃의 배열이 남았는데 반드시 화색, 화기, 키, 잎의 질감, 생육특성 등을 철저히 고려하고 아무 식물이나 적용하면 고급정원이 아닌 버려진 채석장 같은 분위기가 되기도 함을 알아야 하며 반드시 주변과 조화할 수 있게 식물선



택과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식물을 배치하는 사람은 설계자이거나 설계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식물의 전문가 1인이 하여야 한다.

준비된 식물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놓은 다음 한 종류씩 먼저 배치를 한다. 이때 여러 사람이 무작위로 배치를 해서는 안되며 한 사람이 배치를 하는 것이 통일감 있고 안정된 모습을 조성할 수 있다. 식물배치에 있어 보통 3본(주,포기) 정도를 20~30cm의 간격으로 모아 심는 것이 빠른 경관 연출에 도움이 된다. 이때도 반드시 같은 식물을 반복해서 배치해 주는 혼합식재의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예를들면, 상록잔디패랭이를



다양한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절제된 공간을 계속 꽃이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적용하면 한 곳에 3본만을 심는게 아니라 반복해서 심어줌으로써 꽃이 피는 시기에 전체적으로 꽃이 피어 있는 듯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배치가 끝이 나면 그 때는 누구나 식재해도 된다. 다만 이때도 배치한 그대로 그 자리에 심어주어야 함은 당연하다. 우선 심을 자리에 식물포트 크기의 1.2~1.5배의 크기로 부직포를 잘라낸 다음 모종삽을 이용하여 식물을 잘 심고 식재를 완료한다. 이제 작은 돌을 깔아야 하는데 이때 가장 좋은 재료는 화산석이고 다음이 화강암계통의 파쇄자갈, 강자갈, 편마암자갈 등의 순서이다. 이때 자갈의 크기는 지름 1.5~2.5cm 사이가 좋다. 자갈이 준비되면 부직포 위에 매우 균일하고 두께가 일률적으로 깔아주는 것이 중요하며 보통 2~3cm정도가 좋다.

락가든의 관리의 많은 식물이 한꺼번에 식재되는 것이 아니라 극도의 절제 속에 식물이 적용되므로 한포기 한포기를 따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관리의 개념은 화분 하나하나를 관리하는 기본으로 하면 된다. 예를들면 비료도 식물에 따라 다르게 주고 꽃이 피고 지는 시기가 다르므로 관리를 하나하나 하는 섬세한 관리가 최상의 경관연출을 가능하게 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한다. 락가든은 매우 고급스럽고 각 식물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정원의 조성기법이다.

“락가든의 기본 테마는 돌과 식물 그리고 주변환경과 조화가 우선적으로 어울려야 더욱 효과적이다”



골프장에 아름답게 조성된 한국형 암석가든인 ARI가든



유럽형 암석가든은 주로 돌로 단을 주어 조성한다.

정원으로의 여행 14

글 사진 가든디자이너 서수현
현 가든디자이너스튜디오 대표
영국 엑세스 대학교 가든디자인 컨설턴트 및 조경 석사
천안연암대, 건국대 정원관련 강의 및 정원멘토로 활동



장미정원

5월이 되면 정원을 가득 채우는 향기와 화려한 색이 돋보이는 꽃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엇일까? 작약도 있고 목단도 있지만 꽃 중에 꽃은 뭐래도 장미를 빼놓을 수 없다. 장미는 색도 아름답지만 향기도 진하고 강해 예로부터 향수의 원료가 되기도 했다. 장미의 아름다움 때문에 각종 이벤트 날에 연인들에게 장미는 빼놓을 수 없는 선물이기도 한데 지금의 장미는 야생에서 코던 서로 다른 종류의 장미들이 곤충이나 바람에 의해 자연적으로 섞여 만든 자연잡종과 개량종을 의미한다. 개량종이란 교배나 접목(우수한 나무를 얻기 위해 나뭇가지를 잘라 다른 나무에 붙이는 행위를 의미)을 통해 독특하거나 우수한 형질을 갖도록 인위적으로 길러낸 식물을 말한다. 지금까지 2만5000종이상이 개발되었으며 매년 200종 이상의 새 품종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 영국사람들은 장미를 너무나 사랑하여 자신들의 개인 정원에서 새로운 종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아마 그런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장미의 종류를 집계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올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찰레꽃, 해당화, 붉은 인가목 등과 중국의 야생종을 관상용으로 키웠다고 하는데 찰레는 장미보다 꽃이 작고 흰색 혹은 연분홍 빛으로 꽃이 핀다.

우리가 흔히 사랑을 노래하며 바치는 장미 꽃은 서양의 장미인데 장미의 역사는 꽤 오래 되었다. 약 3천만년 이상 되는 장미 화석이 발견되기도 하였고 유명한 영국의 전쟁인 장미전쟁은 이름에서도 나타나지만 장미를 사랑한 요크 가문과 랭커스터 가문의 문장이 각각 흰 장미와 붉은 장미를 나타내어 붙여진 이름이다. 이 두 가문은 30년 동안 왕위다툼을 하다가 랭커스터의 헨리 7세가 요크가문의 에드워드 4세의 딸 엘리자베스와 결혼을 계기로 양가를 통일하며 흰장미와 붉은 장미를 섞어 하나의 문양을 만들게 되면서 장미전쟁이 끝나게 된다. 두 가문의 결혼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천일의 앤'으로 유명한 튜더 왕조의 헨리 8세이다.

헨리 8세는 첫째인 형이 죽으면서 왕이 된 케이스이다. 형이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죽었기 때문에 좋은 집안에서 시집온 왕비를 그냥 둘 수 없어 둘째인 헨리 8세와 결혼을 시키게 된다. 하지만 사랑이 없었던 왕은 앤 볼린이란 여자를 만나면서 대단한 역사가 탄생하게 된다. 자신이 왕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헨리 8세와 첫번째 부인인 캐더린을 이혼시키고 두 번째 부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낳자 화가 난 헨리 8세는 결국 세 번째 부인을 얻기 위해 앤 볼린에게 누명을 씌우고 간통을 이유로 참형에 처했다. 결국 세 번째 부인에게서 아들을 얻었지만 아내 복이 없는 것인지..... 출산을 하며 죽고 결국 여섯번 째 아내까지 얻었으며 이중 한 명은 또 한번 참형을 당하게 된다.



Hever castle, Kent. '천일의 앤'에 나오는 앤 볼린이 체재지 살던 집으로 그녀가 침수장까지 가져갔던 기도소가 지붕 안에 전시되어 있으며 여러 기념품들도 찾아볼 수 있다.



Rosa 'Iceberg' Floribunda ~ floribunda는 한 줄기에 여러 개의 꽃이 달리며 많은 꽃이 달려서 볼리란 시(polyanthas)장미라 부르기도 한다.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미원으로 꼽히는 Hevercastle안의 장미원. 장미 향수를 맡아 놓은 듯 장미원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향이 입속까지 가득 들어온다.

여러 번 주인이 바뀌며 황폐해지던 성을 미국인 억만장자가 1903년, 기술자들로 하여금 성을 복원하고 정원을 만들었다. 튜더왕조를 상징하는 곳이어서일까 Hever Castle (허버캐슬)에는 특히 장미가 아름답다. 오랜 세월 키워온 덩굴성 장미는 줄기의 굵기부터가 남다르게 굵다. 장미원으로 가는 회랑식 길을 들어서면 향기가 술술 풍겨오며 이리 오라 한다. 눈을 감고 향기를 따라가도 장미원이 나타날 정도로 향이 깊고 달콤하다. 향수를 맡아버린 듯 은은하면서도 강렬한 향기가 오랫동안 입 속에 맴도는 듯 하다. 원래 성관정원이 발달했던 시기는 중세시대이다. 이 시대에는 로마 가톨릭, 즉, 천주교가 국교였던 때인데 정원이 종교적 의미로 만들어 지기도 하였다. 역사 속 앤 볼린 또한 카톨릭신자였기 때문에 예수그리스도와 성모마리아를 상징하는 장미를 많이 심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Airwick castle garden의 장미원 입구의 모습. 이곳 장미원은 4분원으로 나누어져 흐르는 물줄기와 출입문에 나타나 있는 문양들은 이슬람 정원의 형태를 보여주기도 한다. 한 곳에서 시작된 물은 장미원을 통과하여 다른 곳의 정원으로 이어져 내려간다.





사진 ▲▶ Alnwick castle garden의 장미원. 남쪽성 정미로 퍼즐라를 장식하여 걸어나는 동안 눈높이에서 장미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바로 눈앞에서 향기가 몸을 감싸는 듯 하다.

영국 정원 여행에서 본 장미원 중 기억에 남는 또 하나의 정원은 바로 에니크 성 (Alnwick Castle)에 조성되어있는 장미원이다. 노섬벌랜드 주에 위치하고 있는 이 성은 스코틀랜드에 대항해 잉글랜드 북동부를 지켜오는 데 쓰이던 요새였다. 지금은 1766년 노섬벌랜드 백작이 조경기술자이자 영국 풍경식 정원 설계가로 유명한 개퍼빌트 브라운에 의해 공원을 조성하였고 건축 또한 스코틀랜드의 건축가 로버트 애덤을 시켜 우아한 성을 만들었다. 이 성은 '해리포터'의 호그와트 마법 학교로 등장한 곳이기도 하다. 특히 이곳은 현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원이기도 하다. 어린이 놀이공원보다 재미있는 정원으로 소개되는데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분수와 다양한 정원들을 감상할 수 있고 특히 가이드와 함께 그룹을 지어 구경할 수 있는 독초정원은 단연 으뜸이다. 여러 독초들을 재미있게 식재 해 두고 어떤 때 쓰였는지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려주어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 곳 정원 중 젤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장미원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웅장하며 가운데로 물이 흐른다. 이 물은 4분원으로 나누어 흐르고 있어 이슬람 정원의 형태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화양목으로 둘러싸여 모양을 만들고 있는 화단에는 다양한 모습의 장미가 심겨져 있다.



사진: 왼쪽 Tuscany -Gallica Rose : 로마인들이 장미를 재배하면서 Rosa gallica라고 이름을 붙인 장미가 있다. , 오른쪽 Ballerina -Modern shrub Rose



6시간 이상의 햇빛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늘진 곳이나 나무 밑에서는 장미가 충분히 자라기 힘들다. 추위보다는 더위를 타기 때문에 봄철에 장미를 심을 때 뿌리가 햇볕에 노출되어 자국 받지 않도록 주위를 기우는 것도 중요하다. 여름철에 30도 이상 되는 더위에 힘들어 하기 때문에 꽃이 잘 피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 뜨겁고 건조한 기후에서는 3~4월 마다 물주기를 해주어야 한다. 이제 곧 장미의 계절이 온다. 미리 정원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 준비 해 두고 장미를 사러 쇼핑을 나가는 것은 어떨까? 장미 꽃잎을 이용한 장미차는 여성에게 좋은 효능을 지니고 있어 폐경이나 변비 등에 효과적이고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보기에도 아름다운 것이 피부까지 아름답게 해줄 줄이야. 실제로 클레오파트라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로 장미꽃잎을 목욕물에 풀어 사용했다고 하니 효과가 확실하지 않을까. 특히 장미의 화려하고 풍부한 향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숙면을 유도하여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화사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 계획이라면 올 여름엔 장미정원을 즐겨보자.



Gardenin
정원다이어리
Garden Diary

일년초로 조성하는

혼성식재 봄 화단

가든인에서 소개해 드렸던 혼성식재는 기존의 일정 구역별로 나누어서 1년초를 식재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다양한 1년초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섞어서 식재하는 기법이다. 실제로 자연스럽게 섞어 놓은 듯한 모습은 철저하게 계산되어 디자인 되어진다.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는 어떤 디자인보다 아름다운 경관을 가져다 준다. 2016년 봄, 아름다운 혼성식재 정원을 찾아가 본다.

글 사진 편집실

관악구내 교통섬 화단

7가지 식물로 혼성되어진 화단이다. 비올라, 크리스산세엠, 하늘국화 블루, 하늘국화 금방석, 멀티컬옐로우, 상록잔디패랭이, 가우라베이비 핑크가 사용되었다. 차량이 빈번한 도로중앙의 교통섬화단에서 포인트로 사용된 가우라베이비를 제외하고 키가 낮은 수종을 적용하였다. 같은 비율로 식재하였는데 단지 그 중에서 노랑색의 하늘국화 금방석과 멀티컬옐로우만 수량을 합쳐서 다른 식물과 같게 하여 전체적인 색감을 맞추었다.



세종로 따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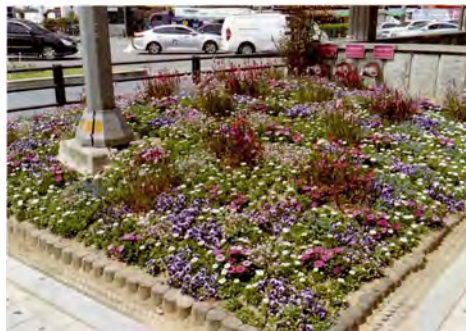
기존 관목으로 조성되어진 따죽지 일부를 관목을 옮기고 일년초로 단장을 했다. 양쪽 2군데의 화단에 언뜻보기에는 패턴은 같아 보이지만 적용식물은 다르게 적용되어 있다.

양쪽화단 모두 포인트로 가우라 적토마, 보로니아, 왁스플라워를 이용하였고 크리스산세엠, 상록잔디패랭이는 공통으로 적용하였다. 그리고 한쪽에는 꽃양귀비, 오스테오스펠럼 분홍, 하늘국화 금방석, 하늘국화 블루를 이용하였고 다른 화단에는 마라고이데스, 하늘국화 춘추, 오스테오스펠럼 노랑, 목마가렛을 이용하였다. 품목은 다르지만 색감이 비슷한 톤으로 나오게 적용하여 전체적으로 느낌을 통일되게 보이면서도 시민들에게 여러식물을 감상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서울대입구 사거리 화단

하양, 보라, 분홍이 적절하게 혼성되어 이루어진 화단이다. 포인트로 가우라 베이비 핑크, 퍼플이 전면에 골고루 배치한 후 다양한 식물들을 혼성식재하였다. 먼저 하얀색으로 크리스산세엠, 보라색으로는 물망초 보라, 비올라, 분홍색으로는 오스테오스펠럼, 물망초 분홍이 선택되어 거의 같은 비율로 혼성되어져 있다. 만약에 화이트톤을 더 올리고 싶다면 오스테오스펠럼 분홍색을 하얀색으로 해주어도 되고 보라톤을 강조하고 싶다면 물망초를 모두 보라색으로 사용하면 될 것이다. 혼성식재의 전체적인 색감 및 디자인은 식물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색상의 선택과 비율도 매우 중요하다.



천호사거리 화단

튤립과 일년초 혼성식재 매트를 이용한 혼성식재 화단이다. 튤립과 일년초를 혼성하여 미리 만들어진 매트를 현장에 바로 적용한 사례이다. 이때 튤립의 색상과 같이 식재되어지는 일년초의 색상이 잘 어울리게 해주어야 한다. 사진으로 보면 노란색의 튤립 아래에는 하얀색의 크리스산세엠이 있고, 빨간색 복색 계통의 튤립 리반디마크 아래에는 흰색의 팬지가 있다. 그리고 보라색의 튤립 네크리타 아래에는 보라색 계통의 비올라가 자리를 잡고 있다. 튤립 혼성매트를 잘 이용하면 이른 봄 튤립과 일년초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고 튤립이 진 뒤에도 일년초는 개화기간이 길기 때문에 연속해서 꽃을 감상할 수 있다.



청계광장

작년 봄에 처음으로 혼성식재 정원으로 조성하여 반응이 매우 좋았던 곳이다. 올해에도 이어서 봄 화단을 혼성식재 정원으로 단장하였다. 포인트로 가우라 적토마, 적엽휴게라, 금어초를 이용하였고 전체적으로 다양한 색깔을 이용하여 혼성식재 하였다. 먼저 흰색의 크리스산세엄, 데이지, 팬지를 전체면적에 골고루 배치한 뒤, 금잔화, 상록잔디패랭이, 물망초, 데이지, 하늘국화 블루, 비올라, 멀티컬옐로우 등을 이용하였다.



주요품종



가우라 베이비



꽃망가비



마라고이데스



멀티컬옐로우



물망초



보로니아



비올라



상록잔디패랭이



오스테오스펠럼 노랑



오스테오스펠럼 분홍



크리산세엄



하늘국화 금방석



오스테오스펠럼 분홍



악스클라워



하늘국화 블루



하늘국화 춘추

우리정원에 가장 활용도가 많은

코레우리 신제품 출시!!

오렌지글로브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35핑크글로브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33크림글로브
Cream globe
102015000531미니볼
Mini ball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44캐슬리움
Castellum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37오렌지리프
Orange leaf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47화이트리프
White leaf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39솔리움
Solium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55미니볼
Mini ball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64미니볼
Mini ball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32미니볼
Mini ball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38미니볼
Mini ball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38미니볼
Mini ball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40미니볼
Mini ball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96미니볼
Mini ball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65미니볼
Mini ball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46미니볼
Mini ball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34미니볼
Mini ball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64미니볼
Mini ball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43

코레우리는 우리꽃이 개발한 신제품 청원식물로 일본을 비롯하여 유럽으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있는 품종입니다. 위 품종들은 새롭게 개발된 품종들로 2016년도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꽃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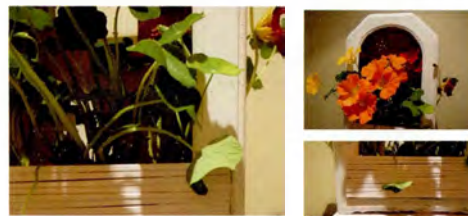
구입문의 : 031-634-7990



고장 난 시계와 나무 젓가락을 이용한 STANDING GARDEN



글 사진 우정 아
가든 코디네이터 / KHDA(한국원예디자인협회)
향원회장



Material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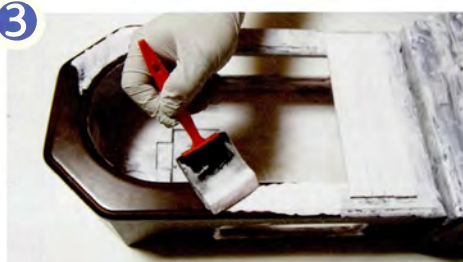
시계의 부속을 완전히 떼어 낸다.

2



옆쪽에 나무 젓가락을 목공용 접착제로 고정시킨다.

3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아크릴 물감을 스펀지 붓으로 두드려듯이 칠한다.

4



방수처리를 위해 비닐을 깔아준다. 이때 방수 테이프가 있으면 더욱 유용하다

5



배수층으로 마사토를 2cm정도 깔아준다

6



한련화를 포트에서 분리하여 식재한다.

7



한련화 사이에 빈 곳을 흙으로 메워 준다.

8



관수 시 물에 흙이 튀지 않도록 마사토로 흙을 다시 한번 덮어 준다.

>> 관리법

한련화는 수술을 제거한 꽃잎이 식용 가능하기 때문에 식탁에서 안심하고 다양한 데코레이션을 할 수 있는 소재이다.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꽃을 피우기 때문에 충분한 일조량과 통풍만 잘 된다면 누구나 즐기기가 쉬운 식물 중에 하나이다. 관수는 한 번 관수할 때 충분한 양으로 여러 번 물 빠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고, 배수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어야 한다. 관리 시 줄기가 뭉치지 않도록 잘 속아 주는 것이 더 풍성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tip이라 할 수 있다.

COLOUR IN THE GARDEN

Pink Flowers

분홍색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단연 귀여운 일 것이다. 그리고 생각나는 말이 있다면 따뜻함, 청쾌함, 발랄함, 아아함, 봄, 어린 아이의 분홍색 드레스 그리고 분홍빛 토틀 일 것이다. 어린아이 처럼 귀엽고, 봄의 토틀처럼 싱쾌하면서 우아한 분홍색. 분홍색의 비밀은 역시 빨강과 흰색의 만남일 것이다. 강렬하면서도 뜨거운 빨강에 밝고 부드러운 흰색이 섞이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우아함이 새롭게 탄생한다. 빨강에 가까운 분홍색에서부터 보라색에 가까운 분홍에 이르기 까지 정말 다양한 그라데이션으로 모든이의 차선을 사로 잡는다. 정원에서는 절대 빼 놓을 수 없는 핑크색의 꽃들(Pink Flowers)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오 도

품목학교생태농업전공부 교사 / 일본 惠泉女學園園藝生活學科에서 화단설계 전공, 전 여미지식물원, 천리포수목원 근무



쥘다래
Actinidia kolomikta
다래나무과·낙엽활엽만경목
▶ 6-7월 순 3월, 10월 ↓ 4-8m



필로술라 다래
Actinidia pilosula
다래나무과·낙엽활엽만경목
▶ 5-6월 순 3월, 10월 ↓ 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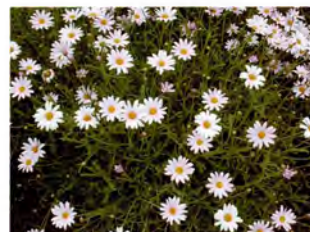
배초향 '키에가비'
Agastache Acaoulca Bicolor Salmon Rose 'Kiegabi'
꿀풀과·속근초
▶ 6-7월 순 3월, 10월 ↓ 0.8-1.2m



알스트로메리아 '스트립트 버드'
Alstroemeria Striped Bird
백합과·속근초
▶ 6-7월 순 3월, 10월 ↓ 0.8-1m



파자보엔시스 악토스타필로스 '파라다이스'
Arctostaphylos gayanaensis Paradise
진달래과·상록활엽관목
▶ 4-6월 순 3월, 10월 ↓ 1-2m



아기란테움 '페티 핑크'
Ageranthemum Petite Pink
국화과·속근초
▶ 5-7월 순 3월, 10월 ↓ 0.6m



마요르아스플란티아 '로마'
Asplenium major Roma
산형과·속근초
▶ 7-9월 순 3월, 10월 ↓ 0.5-1m



슈미타이아돌부채
Berberis x schmidtii
범의귀과·속근초
▶ 2-4월 순 3월, 10월 ↓ 0.5-1m



동백나무 '니오베'
Camellia japonica Niobe
차나무과·상록활엽소교목
▶ 12-5월 순 3월, 10월 ↓ 소교목



동백나무 '레이니 선'
Camellia japonica Rainy Sun
차나무과·상록활엽소교목
▶ 12-5월 순 3월, 10월 ↓ 소교목



동백나무 '레오나르드 메셀'
Camellia Leonard Messel
차나무과·상록활엽소교목
▶ 12-5월 순 3월, 10월 ↓ 소교목



레티쿨라타동백 '노벨 피트'
Camellia reticulata 'Nobel Pearl'
차나무과·상록활엽소교목
▶ 12-5월 수 3월, 10월 ↓ 소교목



동백나무 '스프링 페스티벌'
Camellia Spring Festival
차나무과·상록활엽소교목
▶ 12-5월 수 3월, 10월 ↓ 소교목



윌리엄시아동백나무
Camellia x williamsii
차나무과·상록활엽소교목
▶ 12-5월 수 3월, 10월 ↓ 소교목



윌리엄시아동백나무 '도네이션'
Camellia x williamsii 'Donation'
차나무과·상록활엽소교목
▶ 12-5월 수 3월, 10월 ↓ 소교목



명자꽃 '모어루시'
Chaenomeles speciosa 'Maerlasee'
장미과·낙엽활엽관목
▶ 3-5월 수 3월, 5월 ↓ 1.5m



크네오름서향
Daphne genkwa var. eximia
팔꽃나무과·상록활엽관목
▶ 4-5월 수 3월, 10월 ↓ 1-1.2m



부르크우드서향
Daphne burkwoodii 'Albert Burkwood'
팔꽃나무과·상록활엽관목
▶ 4-5월 수 3월, 5월 ↓ 1-1.2m



펠타타다메라
Daphne genkwa
범의귀과·속근초
▶ 4-5월 수 3월, 10월 ↓ 1.5m



롱기폴리아말발도리 '베이트키'
Deutzia longifolia 'Veitchii'
장미과·낙엽활엽관목
▶ 4-6월 수 3월, 10월 ↓ 1.5-2.5m



패랭이꽃 '핑크 저얼'
Dianthus 'Pink Jewel'
석죽과·속근초
▶ 5-6월 수 3월, 10월 ↓ 0.6m



금낭화
Dianthus spectabilis
석죽과·속근초
▶ 5-7월 수 3월, 10월 ↓ 0.8-1.2m



헬리안테움 '조지엄'
Helianthemum 'Georgeham'
시스투스과·속근초
▶ 5-7월 수 3월, 10월 ↓ 0.5-1m



스코파리움호주매화 '루비 웨딩'
Leptospermum scoparium 'Ruby Wedding'
도금양과·상록활엽관목
▶ 5-7월 수 3월, 10월 ↓ 1-2m



레위시아
Lewisia cotyledon var. heckneri
쇠비름과·속근초
▶ 3-5월 수 3월, 10월 ↓ 0.5m



우단종자
Lychnis coronaria
석죽과·속근초
▶ 5-8월 수 3월, 10월 ↓ 0.6-1m



목련 '아폴로'
Magnolia 'Apollo'
목련과·낙엽활엽교목
▶ 4월 수 3월, 10월 ↓ 5-10m



목련 '펠릭스 주리'
Magnolia 'Felix Jun'
목련과·낙엽활엽교목
▶ 4월 수 3월, 10월 ↓ 5-10m



목련 '갤럭시'
Magnolia 'Galaxy'
목련과·낙엽활엽교목
▶ 4월 수 3월, 10월 ↓ 5-10m



멘지아시아 '스프링 모닝'
Menziesia Spring Morning
진달래과
▶ 6,7월 수 3월, 10월 ↓ 1.5m



플레고파파올레아리아 '스플렌덴스'
Oleonia philippina 'Splendens'
국화과·속근초
▶ 4-6월 수 3월, 10월 ↓ 0.6-1m



마스콜라작약
Paeonia moutan 'Russell'
장미과·속근초
▶ 5-8월 수 3월, 10월 ↓ 0.8-1.2m



아피니스여귀 '하츠우드'
Pieris affinis 'Hartswood'
여귀과·속근초
▶ 5-7월 수 3월, 10월 ↓ 0.15-0.2m



마쿨리타플록스 '알파'
Philox maculata 'Alpha'
꽃고비과·속근초
▶ 6-8월 수 3월, 10월 ↓ 0.5-1m



일변초 '밀러스 크림슨'
Primula japonica 'Miller's Crimson'
앵초과·속근초
▶ 5-7월 수 3월, 10월 ↓ 0.5-0.8m



벚나무 '칸잔'
Prunus 'Kanzan'
장미과·낙엽활엽교목
▶ 4-5월 수 3월, 10월 ↓ 5-6m



벚나무 '시로푸젠'
Prunus 'Shirofugen'
장미과·낙엽활엽교목
▶ 4-5월 수 3월, 10월 ↓ 5-8m



만병초 '코튼 캔디'
Rhododendron 'Cotton Candy'
진달래과·상록활엽관목
▶ 4-6월 수 3월, 10월 ↓ 1-3m



만병초 '데저트 오키드'
Rhododendron 'Desert Orchid'
진달래과·상록활엽관목
▶ 4-6월 수 3월, 10월 ↓ 1-3m



만병초 '히노마요'
Rhododendron 'Hinomayo'
진달래과·상록활엽관목
▶ 4-6월 수 3월, 10월 ↓ 1-3m



만병초 '존니 로즈'
Rhododendron 'Johnny Rose'
진달래과·상록활엽관목
▶ 4-6월 수 3월, 10월 ↓ 1-3m



만병초 '캔 자넉'
Rhododendron 'Kan Jeneck'
진달래과·상록활엽관목
▶ 4-6월 수 3월, 10월 ↓ 1-3m



만병초 '마이스트릭'
Rhododendron 'Patricia's Day'
진달래과·상록활엽관목
▶ 4-6월 수 3월, 10월 ↓ 1-3m



만병초 '패트리시아스 데이'
Rhododendron 'Seven Stars'
진달래과·상록활엽관목
▶ 4-6월 수 3월, 10월 ↓ 1-3m



만병초 '로지 몬'
Rhododendron 'Ray Marn'
진달래과·상록활엽관목
▶ 4-6월 수 3월, 10월 ↓ 1-3m



만병초 '세븐 스타스'
Rhododendron 'Seven Stars'
진달래과·상록활엽관목
▶ 4-6월 수 3월, 10월 ↓ 1-3m



설남 '테트라 레드'
Rosa 'Belinda'
장미과·속근초
▶ 4-6월 수 3월, 10월 ↓ 0.2m



장미 '벨린다'
Rosa multiflora 'Grevillea'
장미과·낙엽활엽관목
▶ 6-7월 수 3월, 10월 ↓



필레꽃 '그레빌레이'
Viburnum x burkwoodii
장미과·낙엽활엽관목
▶ 6-7월 수 3월, 10월 ↓



버크우드아이 가막살나무
Viburnum x burkwoodii
인동과
▶ 4-6월 수 3월, 10월 ↓ 1-3m



정원식물 따라잡기 연재 ③

구근식물 Bulb

구근식물은 초지, 관목지, 산과 유역에 이르기까지 넓게 서식한다. 특히 이른 봄 무채색 경관에 색깔을 주어 그 가치를 높인다. 백합류와 글라디올러스와 같이 여름에 꽃피는 구근은 화단을 화려하게 만들며 꽃이 크고 눈에 잘 띄는 종은 절화용으로도 이용한다. 화분용 구근은 겨울철에 집과 정원을 화사하게 해준다.

구근의 종류

- ① 인경(bulb: scaky bulb): 인경은 우리말로 비늘줄기라고도하여 아마릴리스(Amaryllis), 히아신스(Hyacinth), 백합(Lilium) 등과 같은 구근류이다. 인경으로부터 형성된 괴경(sidetuber)을 분리하여 번식시킬 수 있다.
- ② 괴경(tuber): 괴경은 덩이줄기라고도 하며 줄기가 비대해져서 형성된 구근이며 피막이 없는 것으로서 아네모네(Anemone), 칼라(Calla), 칼라디움(Caladium)이 여기에 속한다. (채소류에서는 감자가 괴경임). 연꽃의 싹들은 덩이줄기에서 자란다.
- ③ 구경(corm): 구경은 땅속줄기가 구형으로 비대한 알뿌리의 한 형태이다. 녹말 등의 양분을 많이 저장하며 살아 쥔 둥근 모양을 하고 있다. 토란, 구약나물, 소귀나물, 글라디올러스 등 땅속에 있는 감자 모양의 기관을 말한다. 지상부가 겨울에 시드는 다년초에서는 월동기

다양한 정원식물의 기본적인 생리, 생태적인 특성을 알아보고 정원식물에 대한 기초정보를 독자여러분에게 소개하여 정원식물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글 사진 편집실



글라디올러스

관이 되고 영양생식(營養生殖)의 역할도 한다. 비늘줄기와 비슷하지만, 비늘줄기는 잎에 양분이 저장된 것이고, 알줄기는 줄기 그 자체가 비대해진 것이다.

- ④ 근경(rhizome): 근경은 뿌리줄기라고도 하며, 줄기가 땅속으로 들어가 수평으로 뻗어 있는 땅속줄기가 비대해진 것을 말하며 육상식물로는 벼, 미치, 칸나(Canna), 꽃생강 등이 있다.

심는 시기에 따른 종류

춘식구근: 칸나, 다알리아, 아마릴리스, 글라디올러스, 프리지아, 글록시니아 등 주로 열대지방 원산종인 경우가 많다.

추식구근: 튤립, 히아신스, 수선화, 아네모네, 무스카리, 크로커스 등 주로 온대지방 원산종인 경우가 많다.

계절성

아네모네, 크로커스, 수선화 등은 이른 봄 먼저 꽃을 피운다. 여러 종을 섞어서 심으면 몇 달 동안 풍부한 관상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여름에 꽃 피는 구근은 보통 키가 크고, 강건하며, 생생한 색-선명한 붉은색 등의 꽃이 핀다.

어디에 기르는가?

구근을 다른 식물들과 혼합하면 서로 대조되어 경관에 흥미가 생긴다. Sternvergia와 같은 작은 구근은 암석식물과 같이 식재하면 좋다. 큰 잎과 꽃을 가진 백합과 칸나 등은 혼합화단이나 관목위주의 화단의 빈 공간을 채우고 자연스러움을 더해준다.

개화기가 끝난 후, 구근은 새로운 식재를 위해 다른 식물과 교체되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좀 더 생육을 증진시켜 다음 해에 꽃을 피우게 할 수도 있다. 보다 풍성한 꽃을 보기 위해서는 광선을 가장 많이 받는 지중해성 기후에서 생육된 구근을 심는 것이 좋다.



무스카리 화이트



크로커스

숨이 자생지인 구근은 시클라멘(cyclamen), 스노우드롭(snowdrop) 등이 있는데 낙엽성교목 또는 관목 아래 살짝 그늘이 드리운 곳에서 잘 자란다. 수선(daffodil), 스칼라(scilla), 크로커스(crocus)는 초지에 많은 양을 심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구근은 화분이나 원도우박스 등에 심어 전시하기에도 안정맞춤이다. 각기 다른 개화기를 가진 종들을 한데 심어 관상시기를 늘릴 수 있다.

재배

별다른 보호 없이 실외에서 잘 자란다. 가장 필요한 것은 중성에 가까운 배수가 잘 되는 토양과 해가 잘 드는 곳이다. 토양이 무겁고, 젖어 있다면, 굵은 모래, 유기물 등으로 토양을 개선한 뒤 식재한다.

꽃이 핀 후, 자연스럽게 잎이 지도록 한다. 잎을 한데 묶거나 자르면, 구근 기관에 저장해야하는 양분을 합성하는 광합성 능력을 줄게 된다. 작고, 희귀한 구근은 시원한 온실에서 키운다. 서리가 있는 지역에서는 여름에 꽃 피는 반내한성 식물이나 4월이후에 꽃 피는 구근을 심는다. 여름에 휴면하는 약한 구근은 시원하고 마른 지역에서 키운다.

구근심기

구근은 올바른 깊이와 서로간의 거리를 고려하여 심어야 한다. 구근은 썩기 쉬우므로 배수가 잘되는 모래 지역에 심는 것이 가장 좋다. 식재깊이는 모래지역, 또는 서리가 잘 내리는 지역에는 구근길이의 4-5배 깊이로, 일반지역에는 구근 길이의 2-3배 깊이로 심는다.



꽃해피



구근다발리아

- 가든인 생생정보 -

계란(卵)과 유(油)의 만남

난황유

살균, 살충 작용이 있는 난황유

난황유는 거의 모든 작물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난황유는 거의 모든 병해에 억제 효과가 있다. 난황유는 직접적으로 살균과 살충작용을 갖고 있다. 병원균의 세포벽 및 원형질의 파괴, 해충의 호흡을 방해하고 해충의 피부를 파괴시킨다.

간접적인 효과는 작물표면에 물리적 피막을 만들어 병해충이 침입하는 것을 억제하고 식물체 표면에서 병원균 발아를 막고, 침입을 억제한다.(특히 오이, 상추, 장미의 흰가루병, 노균병, 점박이응애를 실험한 결과 최고 98%까지 억제효과를 보이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적당한 희석배수를 사용해야 효과 증대

난황유는 기온이 낮은 겨울보다는 봄이나 초여름에 효과가 크다. 한 겨울에 살포할 시 증발효과가 떨어져 결빙되어 약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고온건조시에는 기름과 물의 수분 스트레스가 높다. 특히 병 발생 전에는 0.3%(330배)의 희석배수가 적당하고, 병이 발생하고 나서는 0.5%(200배) 희석으로 사용하면 좋다고 한다. 예방적 살포는 10일~14일 간격으로 살포한다. 또 병 발생 후 치료를 위해서라면 5~7일 간격으로 살포한다. 잎 앞면뿐만 아니라 뒷면과 물도록 충분한 양을 살포해야 효과가 높다.

친환경농자재 '난황유' 만들기

1. 난황유와 식용유는 필수, 용량을 재기 위한 눈금있는 용기를 준비한다.
2. 물 100ml에 계란 노른자 한 개를 넣고 2~3분간 믹서나 가구를 이용해 혼합한다.
3. 계란 노른자 물에 식용유 60ml를 첨가해 다시 2~3분간 혼합한다.
4. 하얗게 거품이 일어나면 혼합물에 물 20L를 채워 0.3%용액을 만든다.
5. 난황유를 분무기에 담는다. 병해가 발생한 곳에 뿌려준다.

꽃이 아름다운 관목

수국 잘키우는 법



햇빛 및 온도

반그늘에서 키우는 것이 좋다.

18℃~25℃에서 잘 자라며, 수국은 배란기에 두면 좋다.

용토

밭흙 20%, 모래 40%, 부엽토 40%의 혼합비율로 혼합하여 이용한다.

물주기

수국은 물을 좋아하므로 매일 한번씩 흠뻑 주고 여름에는 하루에 두 번 준다.

거름주기

적색이나 분홍색 꽃이 피는 품종은 질소 30%, 인산 10%, 칼륨 10%의 비율이 되게 청색 계통은 질소 10%, 인산 20%, 칼륨 30%의 비율이 되게 한달에 세 번정도 준다.

물속의 작은 정원

수생식물

생활양식에 따라 구분

수생식물 종류는 생활양식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종을 갖고 있는 정수성 수생식물이 있다. 정수성 수생식물은 물 아래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식물체 대부분이 물 밖에 나와 자라는 식물이다. 벼, 올챙이, 매자기, 고랭이류, 물옥잠, 물달걀, 등 눈에서 많이 보는 식물들이 대부분이다. 또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잎과 꽃을 수면에 띄우는 부엽성 수생식물이 있다. 보통 수련이나 연, 아리연 등이 여기에 속한다. 뿌리를 수면 아래 흙에 내리고 지상부가 물에 완전히 잠긴 침수성 수생식물도 있다. 나사말, 검정말, 물세미, 솔잎가래 등 보통 아항에 키우는 식물들이 여기에 속한다. 아울러 생이가래, 개구리밥, 잠개구리밥 등 뿌리가 흙에 고정되지 않고 물 표면이나 수중에 떠서 물의 이동에 따라 떠다니는 부엽성 수생식물이 있다.

TIP!

물 속에 비료를 많이 넣었다면 육조에 깨끗한 물을 받아 몇 번씩 물을 갈아 희석시킨다.

비료는 여름에 주면 안되고, 봄 또는 가을에 준다. 여름에 주면 물 속 온도가 올라가 열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생식물, 이것만은 알자

- ▶ 구 입 : 국내 수생식물 업체는 많지는 않다. 다 현장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식물 특성상 택배 거래는 하지 않는다.
- ▶ 물관리 : 물을 자주 갈아주지 말아야 한다. 물을 한번 채우고 마르는 기간은 평균 15일 정도 물이 증발하면 새로 넣어 주는 것만으로 물 관리는 끝이다.
- ▶ 병해충 : 응애류는 거의 끼지 않는다. 진딧물은 일년에 한번정도 발생한다. 일반적인 방제는 분화용과 같다. 단 비료는 일반 흙에 주는 양의 1/4정도.
- ▶ 장마철 관리 : 장마철에는 큰 영향은 없지만 우자랄 염려가 있다. 배란기에 햇빛이 간혹 비칠 때 햇빛 방향에 배치해 주는 것이 좋다.



GARDEN & BOOK

테마별로 정리한

정원 유지관리 실내식물 기르기

저자 : 권영희, 김영아, 정연옥

정원 유지관리 실내식물 기르기]은 실내의 정원과 식물에 대해 꼭 필요한 그림과 현장 사진을 제 곁으로써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총 4개의 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첫 번째 장은 실외 정원의 유지 관리에 꼭 필요한 내용, 정원 수목식재, 정전 관리, 수목 시비 관리, 겨울철 정원수 관리, 병해충 친환경 방제, 비전염성 병충해 관리, 잔디 관리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두 번째 장에서는 실내 식물의 재배 방식과 관리 방법으로 구성하였으며, 실내 식물을 제대로 가꾸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조건,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화분 식물, 건강을 증진시키는 꽃과 식물, 음식에 이용할 수 있는 꽃, 식물 이야기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세 번째 장에서는 야생에서 자라는 야생화 가운데 가꾸기 쉽고 관리하기 쉬운 22종을 선정하여 학명 및 과학, 생육특성, 재배 및 관리법, 번식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네 번째 장은 실내 정원 꾸미기에 대해 Hanging Garden, 허브 정원, 수경 재배, 미니 연못 정원, 난 이끼물, 테라리엄, 가윗장을 이용한 원예용 및 야생화 정원, 풍관을 이용한 석벽작, 선인장 정원 등을 직접 만들어 관리하는 방법 등을 다양한 사진과 함께 상세히 설명하였다.

꽃 인테리어

저자 : 월간 플로라 편집

꽃향기 가득한 우리집 꾸미기

『꽃 인테리어』는 좋은 꽃을 고르고 구입하는 방법부터 우리 집을 꾸미는 88가지의 방법을 30명의 플로리스트가 알려준다. 일반인들도 쉽게 따라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작품을 상세히 설명하며 사진을 통해 과정을 알려준다. 단계별로 따라하다보면 어느새 자연스러운 연출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집안을 싱그러움 식물로 분위기 있는 인테리어를 연출 할 수 있다.

도심 속 아파트나 빌라에서 나만의 정원을 만드는 일이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일상에 생기를 주는 녹색 공간을 만들고 싶다면 이 책을 참고해보자. 꽃과 식물에 전문지식을 가진 디자이너가 아닌 일반독자들이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작품들과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사진들로 이루어져있다. 누구나 기본적인 준비물을 갖추고 시작할 수 있으며 단계별로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러운 연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화분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식물들을 독특한 화기에 모아 심거나 어울리도록 재배치하여 작은 변화만으로도 싱그러움 분위기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 식물을 키우는 동시에 집안에서도 어울릴 수 있도록 인테리어적인 요소를 가미하였으며 만드는 과정에서 오는 재미와 완성을 통한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준비-만들기-관리 순서로 구성하였고 벽, 주창, 거실과 발코니 등 각각의 공간에 맞게 어울릴만한 작품들로 골라볼 수 있다. 하나씩 시도하다 보면 책 속의 작가들이 만든 것처럼 멋진 인테리어 소품과 정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식물을 이용한 녹색공간을 통하여 일상의 즐거움과 위안을 얻어보자.



자작소개

역은이 월간플로라는 플러워 디자인과 식물 키우기 정보가 가득한 꽃 전문 잡지이다. 매월 최고의 플로리스트들이 제안하는 특별한 디자인과 식물 키우기 관련 정보, 시즌 테마, 자상강의 등을 통하여 플러워 디자인과 식물 키우기의 트렌드를 미리 볼 수 있으며 전문 플로리스트 뿐 아니라 꽃과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매월 참조하는 필독서이다.

10%
~20%
OFF
인하

정기구독 안내

[구입처]

오프라인 서점
교보문고

광화문점 : 서울특별시 중로구 중로 1
영등포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로 15 타임스퀘어 멀티플렉스 2층
강남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코보타워 지하1, 2층
목동점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지하 1층
잠실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 캐슬프라자 지하1층
인천점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38 이도타워 지하 1층
부천점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연동로 1 부천역사 7층
안양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11 CGV 1번가 5, 6층
분당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분당퍼스트타워 지하1층
천안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3층
대구점 :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성로 586 교보생명빌딩 지하1층
센텀시티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35 신세계 센텀시티 5층
부산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58 교보생명빌딩 지하 1층
창원역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4 마이우스 빌딩 지하1층
영풍문고 잡실점, 영광도서(부산), 남부문고(부산), 녹산문고(수원)

온라인 인터넷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알라딘 www.aladin.co.kr

[입금방법]

카드 결제 및 문의사항 : 031-712-7009

무통장입금

예금주 :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농협 355-0030-2359-03

▶ 입금 후 반드시 주소와 성명을 알려주셔야 배송가능합니다.

[정기구독방법]

1년 16.6% 할인 (100,000원)
2년 20% 할인 (192,000원)

Gardenin

발행처 :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발행인 : 김영채 경희대학교 명예 교수 / 농학박사
박공영 우리씨드(Uniseed)그룹 대표 이학박사
고문 : 이순영 前 함평 농업기술센터 소장
편집인 : 서준혁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성미로 924번길 87
전화 : 031-712-7009
팩스 : 031-634-7991

전문위원 : 김광두 농학박사 / 前성명대학교 겸임교수
김광준 대림업예종교(주)대표
김귀순 (주)그린페이퍼 대표
박신애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 교수
안완식 농학 박사 씨드림대표
우정아 가든 코디네이터 한국원예디자인협회 향원회장
유봉수 솔개고농 대표
윤정식 대한아로마테라피학회 회장
윤희성 농학박사 / 삼육대학교 명예 교수
이정식 농학박사 / 前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이종석 농학박사 / 서울여자대학교 명예 교수
최주권 농학박사

디자인&인쇄 : 워킹카우42 Workingcow42@naver.com
010 7399 5488



국내최초

허브&아로마테라피 교육체험센터 생활의 향기



Since 2006

<주요사업>

허브힐링 건강세미나(기업체, 단체)

- 허브향기로 스트레스를 싸~악 날려버리자!

허브힐링 인성·진로 교육(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 허브힐링을 통한 마음치유와 건강하고 목표가 있는 삶!

- 허브 조향사 진로 교육

허브 & 아로마 교육 체험학습

- 허브비누

- 허브향수(안티스트레스, 집중력 등)

- 허브스프레이(호흡기, 근육 등)

- 아토피 연고, 호흡기 연고, 천연 립밤 등

- 천연 에센스, 스킨, 로션 등 허브 화장품

직영 매장

보광 휘닉스파크 블루동 1층
- 허브체험센터, 아로마 캔들하우스

상호 협력기관

대한아로마테라피학회(www.aromatherapy.or.kr)
- 아로마테라피 실용전문교육기관으로 아로마 자격증 발급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죽엽산로 493(고모리 183)
Tel.031-544-7084 Fax.031-544-7086
www.aromailife.com

Nice to  you!

가든엔씨앗

정원용 고급종자 **100**선



유럽 직수입 다양한 고급품종!

다년초, 1,2년초, 허브, 덩굴식물 등 다양한 종자를 선보입니다.



우리꽃연구소
URISEED LAB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Tel. 031-712-7009 Fax. 031-634-7991